

true friend 한국투자 증권

BanKIS®

※투자 전 설명 청취 ※원금손실 유의

코스피(14일)	2064.52 (-11.05P)	코스닥	683.09 (-3.24P)
환율(달러당 원화)	1123.00 (+6.60원)	금리(국고채 3년물)	1.797% (-0.007%p)

제2057호

신동훈 교원 사장 “시스템 정수기로 시장 바꿀 것” 12

허경구 KIND 대표 “해외건설 수주 지원 성과낼 것” 19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한진중 채권단 “동서울터미널 연내 팔아라”

산은 등 자율협약 2년 연장하기로
자산매각 통해 유동성 확보 압박
산은 “조만간 한진중에 통보할 것”

한진중공업 지구계획안 (단위: 억 원)

변경 약정서 내용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2019년까지 동서울터미널, 잔여 울도부지 매각	3269	6214	131877	231360
합계	3345	6214	2106	1665
자산매각	76	-	229	305
지분매각	-	-	-	-

산업은행 등 한진중공업 채권단이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연내 동서울터미널과 울도부지 매각을 추진한다. 한진중공업과의 자율협약을 2년 연장하면서 수빅조선소 기업회생 절차 신청 등 약재가 발생함에 따라 유동성 확보를 재촉하는 분위기다. ▶관련기사 8면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 등 한진중공업의 채권단은 자율협약을 2년 연장하고 변경 약정서에 한진중공업의 동서울터미널과 잔여 울도부지 매각을 올해까지 특정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산은 관계자

는 “이미 채권단에서는 관련 내용을 협의한 상태”라면서 “조만간 한진중공업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채권단이 자산 매각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한진중공업의 유동성 확보가 경영 정상화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채권단 관계자는 “동서울터미널과 울도부지 모두 비운영 자

산”이라며 “이를 매각해 얻은 자금으로 일부 채권을 상환하거나 나머지 운영에 투입하는 쪽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두 자산의 가치를 7000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유동성 위기를 겪던 한진중공업은 2016년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당시 약정 기간은 2018년 12월 말까지로 설정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유동성 위기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한진중공업의 유동부채는 유동자산보다 1조 원 넘게 많은 수준이다.

이에 채권단은 작년 12월 26일 자율협약 기간을 2020년까지 2년 연장했다. 당시 채권단은 채권을 유예하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변경약정서를 2월 28일까지 제

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한진중공업의 종속기업이자 필리핀 현지법인인 HHIC-Phil Inc.(수빅 조선소)의 경영난이 자율협약 종료로 연장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10년 동안 이어진 조선업 불황에 따른 수주량 감소와 선가 하락 등의 여파다. 현재 수빅조선소 수주 잔량은 10척 정도인 것으로 전해진다. 수빅조선소의 순손실은 상반기에만 484억 원에 달했다. 작년 9월 말 기준 수빅조선소의 자산은 1조8092억 원, 부채는 9375억 원 규모다.

채권단 관계자도 “수빅의 보유지분 가치를 감안하면 작년 한진중공업은 자본잠식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유동성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최악 미세먼지에 공기청정기 불티

가능성 마스크 매출도 ‘쑥’

고농도 미세먼지로 최악의 대기 상태가 며칠째 이어지면서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등이 생존 아이템으로 떠올라 관련 제품 판매도 급증하고 있다. ▶관련기사 9면

14일 G마켓에 따르면 최근 한 달(2018년 12월 14일~2019년 1월 13일) 동안 공기청정기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3% 뛰었다. 차량용 공기청정기 판매량 역시 45% 증가했다. 최근 한 주(2019년 1월 7일~13일)로 간격을 좁히면 판매량 신장률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 기간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공기청정기 판매량은 각각 69%, 77% 늘었다.

오프라인 소비자 역시 크게 늘었다. 전자랜드의 지난해 공기청정기 판매량은 전년 대비 20% 성장하며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다.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한 달간 전자랜드의 공기청정기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9% 수직 상승했다. 최근 일주일 판매량 역시 96%로 2배 가까이 치솟았다.

편의점도 늘어난 가능성 마스크 수요에 행복의 비명을 지르고 있다. GS25에서 최근 3일간 마스크 매출 신장률은 전월 대비 335%, 전주 대비 261% 뛰었다. 회사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심해짐에 따라 마스크 재고를 확보해 고객들이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 수요가 증가한 이유는 최근 중국 발 고농도 미세 먼지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세먼지가 계절 없이 1년 내내 기승을 부리면서 공기청정기 판매는 올해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0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으며 미세먼지는 15일 오후에야 차츰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주현 기자 jooh@

우리금융 4년2개월 만에 지주사 체제 부활

손태승 회장 “소규모 자산운용·부동산신탁·저축은행 등 M&A 적극 추진”

사업 포트폴리오 등 5대 과제 제시
2020년까지 1등 금융그룹 목표도

우리금융지주가 14일 은행 체제에서 지주 체제로 공식 전환했다. 2014년 11월 민영화 과정에서 계열사를 매각하고 은행 체제로 바뀐 지 4년 2개월 만에 다시 지주사 체제로 복귀한 것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규모가 작은 자산운용사와 부동산신탁사,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인수·합병(M&A)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금융 취약점은 은행은 강하지만 비은행 부문이 약하다는 것”이라며 “비은행 부문을 적극적으로 M&A 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겠다”고 했다. 현재 우리금융 자산의 99% 이상이 우리은행이다.

우리금융이 당장 규모가 큰 M&A에 나서지 못한 이유는 BIS 자기자본비율 때문이다. 신설 회사인 우리금융은 BIS 자기자본비율 계산 시 내부등급법이 아닌 표준등급법을 사용해 불리하다. 현재 15.8% BIS 비율은 우리금융으로 전환하면 10% 내외로 떨어질 전망이다.

손 회장은 규모가 큰 증권사나 보험사 M&A에 대해선 “직접 인수가 어려우니 다른 곳과 같이 참가해서 지분을 갖고 있다



손태승(왼쪽 세 번째)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14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우리금융지주 출범식에서 현판 점등식을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최중구 금융위원장, 손 회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연합뉴스

가 내년에 BIS 비율을 회복하면 50% 이상 인수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20년쯤에는 상당 부분 포트폴리오를 갖춰서 은행과 비은행 부문을 최대 6대 4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카드와 우리종합금융은 상반기 내 지주사로 편입할 계획이다. 손 회장은 “우리카드는 지주사 주식 50%, 현금 매입 50%로, 우리종합금융은 오버행(잠재적인 과잉

물량 주식) 이슈를 줄이기 위해 현금매수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며 “지주사 BIS 비율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향후 지배구조 투명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금융은 과점주주가 이사회를 구성해 회장과 은행장을 잘 견제하고 있다”며 “회장 연임을 극단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손 회장은 임기는 1년으로 내년 3월까지다. 손 회장은 이날 △안정적인 금융그룹 구축 △사업 포트폴리오

확충 △4대 성장동력 강화 △그룹 리스크 관리 고도화 △그룹 경영 시너지 창출 등 5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특히 글로벌, 디지털, 기업투자금융(CIB), 자산운용 등 4가지 분야에서 다른 금융그룹보다 월등하게 잘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며 “2020년까지 1등 금융그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새하 기자 shys0536@
김보름 기자 fullmoon@

삼성전자, 인도시장 1위 탈환 노린다

중저가·고사양 스마트폰 ‘갤럭시 M’ 이달 공개

삼성전자가 새로운 중저가·고사양 스마트폰 ‘갤럭시 M(사진)’ 시리즈를 선보이며, 인도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포스트차이나로 평가받는 인도시장에서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을 물리치고 1위 자리를 되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14일 삼성전자와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인도에서 갤럭시 M10·M20을 공개한다. ‘갤럭시 M’ 시리즈는 기존 갤럭시 C, J, On 시리즈를 대체하는 새로운



중저가 제품군으로 △M10 △M20 △M30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갤럭시 스마트폰 최초로 ‘인피니타-U’ 디스플레이가 장착되며 최상위 모델인 ‘M30’에는 트리플카메라가 장착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특히 현지에서는 갤럭시 M시리즈의 가격이 2만 루피(약 283달러) 이하로 출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인도에서 2017년 3분기까지 점유율 1위를 기록했지만, 4분기부터 샤오미에 밀려 6년 만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샤오미가 점유율 27%로 1위였고 삼성은 23%로 2위를 차지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고농도 미세먼지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서울 잠실대교에서 바리바리 잠실 일대가 미세먼지에 갇혀 있다. 연합뉴스

<대림산업>

9년 만에 회장 오른 이해욱... 첫 과제 '플랜트 살리기'

IMF·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등 변화·혁신 경영능력 인정받아 갑질 논란 등 이미지 개선 숙제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14일 회장으로 승진 취임하며 관련 업계를 비롯해 사회 전반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해욱 회장은 1995년 대림에 입사해 2010년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부회장직 9년 만에 승진한 셈이다.

이 회장은 2011년 이후 공석이던 그룹 회장직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지만, 계열사 대표이사라는 말지 않는다. 이에 대림그룹은 각 계열사별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3월 이 회장을 포함한 대림산업 대표이사 3인은 이사회 중심의 독립·전문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사임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이준용 명예회장의 장남이자 창업주 고(故) 이재준 회장의 손자로, 1992년 미국 덴버대 경영통계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미국 콜롬비아대에서 응용통계학 석사를 받았으며 같은 해 대림산업에 입사했다.

이 회장은 이날 사내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명예회장님과 선배님들이 이뤄 놓으신 대림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절대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라는 간단한 취임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회장의 승진은 그동안의 경영 성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주도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IMF 당시 석유화학사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서는 한편, 석유화학사업 빅딜 및 해외 메이저 석유화학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성사해 그룹 전체의 재무 위기를 무사히 넘겼다는 설명이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건설사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신평면 개발과 사업방식 개선,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전 분야에 걸친 원가 혁신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주택 공급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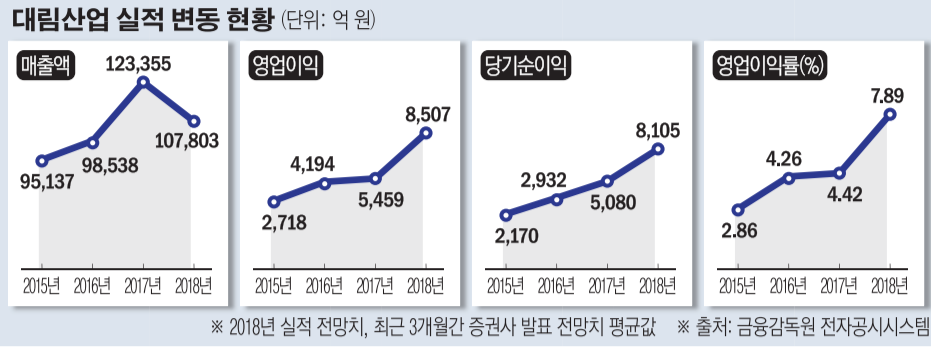
하지만 대림산업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사업적인 면에서는 플랜트 부문의 부진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연말 임한재 대림산업 플랜트사업본부장은 사내 인트라넷 시스템에 '임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비상경영 선언문)'을

올리는 등 위기감이 팽배하고 올해 1월부터 조직을 축소·통합했다. 설계 조직과 공사 조직을 합치고 입찰·영업 등 신규 수주 관련 조직을 축소했다. 근무지를 서울 종로구 디타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기존 임직원 임금도 3년간 동결하고, 본부 내 인사 승진은 경영 정상화 때까지 중단기로 했다.

대림산업 플랜트사업본부 인력이 회사 전체의 3분의 1 이상인 1500여 명에 달하는 만큼 플랜트 부문의 문제 해결이 향후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2016년에는 운전기사에게 무리한 요구와 폭언을 한 사실이 밝혀지며 갑질 논란이 일었고 이로 인해 2년 연속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요구를 받는 등 아직도 지속적으로 회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사과도 필요한 상황이다. 당시 이 회장은 주주총회 자리에 나타나 사과했지만, 대국민 해명을 한 적은 없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래리 헉 "디바이스 중심 AI, 사용자 맞춤형으로"

<삼성전자 AI 연구센터 전문>

"삼성의 인공지능(AI) 철학은 디바이스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래리 헉(Larry Heck·사진) 삼성전자 미국 실리콘밸리 AI 연구센터 전문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 삼성 전자 DS(Device Solutions) 부문 미주 총괄에서 '삼성전자 인공지능(AI) 연구 방향과 비전'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주변의 다양한 IT·전자기기들이 개인을 중심으로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AI를 개발하겠다는 뜻이다.

헉 전문은 AI 연구개발(R&D) 분야의 권위자로 2005년 야후에서 R&D 부문을 맡아 검색에 AI 서비스를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2009년 마이크로

소프트(MS)에 합류해 AI 서비스 '코타나' 개발을 주도했으며, 2014년 구글로 자리를 옮겨 '구글 어시스턴트(Assistant)'를 개발했다. 2017년 11월부터 삼성전자의 북미 선행연구 조직인 삼성리서치아메리카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현재 초기 단계의 AI 시장이 향후 멀티 디바이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인화된 AI로 급속히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컨대, AI 어시스턴트를 통해 영화를 예약할 때 음성으로 특정 좌석을 선택하는 것은 어렵지만, TV나 냉장고의 스크린을 통해 좌석표를 보여준다면 더 손쉽게 선택할 수 있다. 개별 사물이 연동돼 사용자에게 최적화되고,

AI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의 연구 목표다.

그는 "삼성의 AI 철학은 디바이스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이 되는 것인 만큼 개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려고 한다"며 "삼성은 60억 대의 기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기기에 지극히 개인적이고 각자의 요구에 맞는 기능을 넣을 빅스비를 넣을 수 있을 까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AI 어시스턴트들은 사용자의 질문이나요

청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화가 끊기고 활용도가 낮지만, 앞으로는 사용자와 질의 응답을 통해 학습하고 다양한 디바이스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해 최적의 개인화된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의 AI 플랫폼은 사용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기들과 함께 공존

하는 형태로 발전해 사용자 개인의 특성이 반영된 진정한 개인화(Personalization)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헉 전문은 "이를 위해 더 많은 기기에 AI 플랫폼을 장착해야 하고

각 디바이스들은 음성, 시각, 터치, 모션 등의 다양한 센서들을 통해 유기적으로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는 다양한 기기들과 그 기기들에 장착된 센서들을 통해 사용자의 취향과 요구를 이해하게 될 때 배움의 속도가 빨라지고 정확도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 AI 연구센터는 한국 AI 총괄센터를 포함해 미국(실리콘밸리·뉴욕), 영국(케임브리지), 캐나다(토론토·몬트리올), 러시아(모스크바) 등 AI 기반 기술과 인재가 풍부한 7개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삼성전자 인공지능 연구 방향 발표 "전자기기와 유기적 소통 가능해야"

HYUNDAI DEPARTMENT STORE GROUP

h point
고객에게 주는 세상에서 가장 큰 혜택

H.Point는 하나의 ID로 현대백화점그룹 전 계열사의 온라인 서비스에 로그인 가능하고 온/오프라인 어디서든 포인트 적립과 다양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멤버십입니다.

현대백화점 | 현대홈쇼핑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 Duty Free | 한성 | 현대G&F | 현대리마트 | 현대HCN | 현대렌탈케어 | 현대그린푸드 | 현대드림투어 | 더현대닷컴 | 현대Hmall | 더한섬닷컴 | H패션몰 | 현대위크몰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中굴기에 경착륙” vs “新기술로 연착륙”... ‘공수’ 따라 엇갈린 전망

〈공급과 수요〉

기로 선 반도체 어디로

올해 반도체 시장 전망을 놓고 공·수(공급과 수요) 격돌이 뜨거워지고 있다. 반도체 시장이 황금 사이클 정점을 찍었다지만 공급과 수요 어느 면에 무게를 더 두느냐에 따라 경착륙과 연착륙으로 전망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향후 반도체 시장 변화를 전망하는 데 있어 수요와 공급 어디에 무게추를 두느냐에 따라 분석이 엇갈린다. 특히 올해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먼저 공급 측면에선 중국발 반도체 굴기가 변수다. 중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올해부터 제품 양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는 2세대 32단 3D 낸드플래시, 푸젠전자(JHICC)는 서버용 D램, 이노트론은 모바일용 D램을 각각 양산할 예정이다.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중국 업체의 기술력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의 경우, 지난해 32단 낸드 제품을 내놨지만 수율 문제로 양산도 못 하고 있다. 올해 64단 제품까지 양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길은 멀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 업체의 경우 아직 D램 양산이 어려운 단계이고 낸드는 올해 양산할 거라고 했지만 판매 가능한 수준일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상무 역시 “중국 올해 메모리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공

중 공급 변수지만 기술력 물음표 삼성·SK “하반기 안정세 찾을 것” 수요에서도 급격한 감소 없을 듯 4차산업 기반 초격차 기술 매진

급 측면에선 영향이 올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상무는 “수율 문제로 인해 생산량을 늘릴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수율이 안 나오면 원가부담 때문에 양을 늘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생산을 일단 시작하면 다음 기술 개발은 로드맵에 따라 수월하게 갈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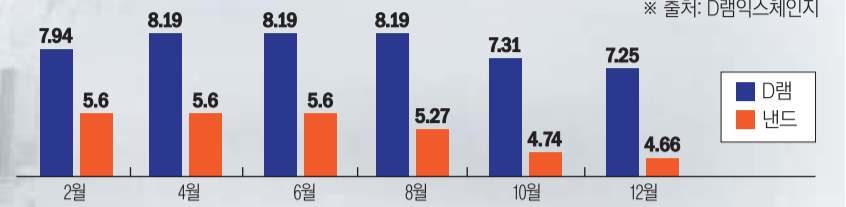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하반기 메모리 수요가 다시 늘어난다는 판단 하에 신제품을 통한 시장 공략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올해 주력제품은 규모를 바꾼 역시 D램이 될 것”이라며 “신제품에 대해 얘기할 순 없지만 올해 3세대 D램과 V6낸드가 나온다면 공급자로부터 큰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요처의 경우,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이 회복되며 중국 등 거대 시장 메모리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D램의 경우 현재 메인 미세공정 기술인 1x(10나노 후반)를 적용한 제품을 지속 생산하면서, 차세대 기술인 1y(10나노 중반)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양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낸드는 메인 제품인 72단과 함께 96단 4D 낸드 제품을 양산할 예정”이라며 “시장 전체적으로 D램은 아무



메모리 반도체 가격 추이 (단위: 달러)



올해 반도체 시장 공급·수요 측면 호재 및 약재

	호재	약재
공급	① 삼성·SK하이닉스 재고 조절 ② 낮은 수율로 인한 중국 업체 생산 한계	① 중국발 메모리 공급 증가 ② 제조 공정 효율화로 인한 물량 확대
수요	① 하반기 스마트폰 수요 회복 전망 ② 자율주행차 등 4차산업 확산 ③ 인도·아프리카 등 신시장 모바일 수요 확대	① 스마트폰 시장 침체 지속 ② IT기업 데이터센터 투자 지연 ③ 미·중 무역전쟁 등 주요 시장 경기 불황

래도 서버와 모바일 중심이고, 낸드는 모바일과 SSD가 메인인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요 측면에서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결코 급격히 추세가 꺾일 정도는 아니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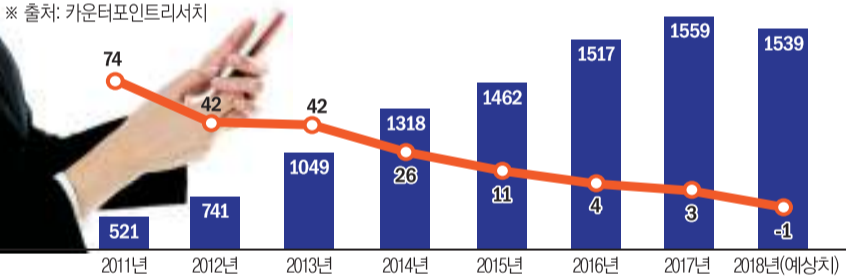
이에 대해 안 상무는 “공급자 중심이던 슈퍼 호황기가 꺾인 후, 반도체 시장은 수요자가 이끌고 있다. 상반기에는 다소 침체됐다가 하반기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구매자들(글로벌 IT기업) 역

시자들이끼리도 경쟁이기 때문에 더는 투자를 미룰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IT 전문 시장조사업체인 가트너도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이 총 4890억 달러(약 545조 원)로, 지난해(4770억 달러)보다 2.6%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가트너의 밥 존슨 애널리스트는 “앞으로 시장이 다소 불안하겠지만 중장기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D램 시장의 경우 삼성전자

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의 ‘과점 구조’이기 때문에 서버·스마트폰 생산 업체들이 높은 가격을 지불할 것”이라며 “이윤리 자동차와 스토리지용 수요 비중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인공지능(AI), 5G, 자율주행 등에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있어 2008-2009년의 ‘반도체 실적 악몽’을 다시 겪을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송영록 기자 syr@

글로벌 스마트폰 성장세 추이



‘일보후퇴’ 스마트폰 시장 ‘이보전진’ 동력은 신흥국

美 CNN, 글로벌 시장전망

“수요정체로 작년 첫 역성장했지만 올해 피쳐폰 교체 늘며 회복 예상”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역성장’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올해는 회복세를 되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CNN은 스마트폰 시장 전문분석업체인 캐널리스와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전망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캐널리스와 카운터포인트는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약 1%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스마트폰 시장이 역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다른 분석업체인 IDC는 위축 폭이 3%에 달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실제로 스마트폰 시장의 양대 축인 애플과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어닝 쇼크’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LG전자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80% 줄었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에서의 최근 2년간 감소 추세가 작년 시장 축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캐널리스는 지난해 중국이 통화 약세와 미국과의 무역 전쟁 장기화로 경기가 둔화하면서 스마트폰 시장 규모 역시 9% 가까이 축소됐다고 집계했다.

그러나 지난해 ‘최악’을 겪은 만큼 올해부터는 스마트폰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카운터포인트의 톰 강 리서치 부문 이사는 “올 상반기까지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스마트폰 시장이 회복되면서 연간 이익 규모가 다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피쳐폰’에서 더 나은 기기로 업그레이드하려는 수요가 스마트폰 시장 성장세를 이끌 것으로 전망됐다. 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폰이나 폴더블폰(화면이 접히는 스마트폰) 등 신기술이 등장하게 되면 기존 피쳐폰 충성 고객들이 이동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강 이사는 “올해 많은 피쳐폰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뿐 아니라 인도, 아프리카 등 아직 수십억 인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신흥국에서의 수요도 올해 스마트폰 시장 회복세를 이끌 요인으로 꼽혔다.

다만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은 여전히 변수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G2의 긴장감은 애플(미국)과 화웨이·ZTE(중국) 모두에 타격을 입힌 상황이다. CNN은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고 무역 갈등이 해소되지만 한다면 스마트폰 시장은 다시 반등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1,000만 고객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DB금융이 있습니다

- DB손해보험
- DB금융투자
- DB생명
- DB캐피탈
- DB자산운용
- DB저축은행

“내 곁에 DB금융이 있다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금융 - DB금융네트워크

국내 손해보험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최고 수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종합금융투자회사 - DB금융투자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 우량저축은행 - DB저축은행
고객이 신뢰하는 우수한 성장률의 보험회사 - DB생명	수익률과 안정성을 지닌 종합자산운용회사 - DB자산운용	대한민국 여신금융의 리더 컴퍼니 - DB캐피탈

文 대통령, 오늘 5대 그룹 총수 등 경제인과 자유토론

기업인과 타운홀미팅

이재용·정의선 등 130여명 참석
재계 인사들과 자유롭게 질문답변
'사회적 물의' 한진·부영·대림 제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대기업 총수와 중견기업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 등 경제계가 참석하는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갖는다.

이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청와대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신년 기자회견처럼 사전 시나리오 없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회의에서 주요 대기업 총수가 문 대통령에게 어떤 애로사항을 건의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문

대통령이 신년 들어 전담해 온 경제 행보의 하나로 경제계와의 소통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혁신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한 대기업 대표 22명, 업종을 대표하는 중견기업인 39명, 대한상의·지역상공회의소 회장단 67명 등 총 130여 명이다. 대기업에서는 5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최정우 포스코 회장, 허창수 GS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이 참석한다.

대한상의는 대기업 자산 순위 25위 그룹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재판 중인 한진그룹(조양호 회장)과 부영그룹(이중근 회장), 대림산업(이해욱 부회장) 등 3 곳을 제외한 22곳을 선정했다. 이 중 자산 순위 26위인 효성이 포함된 이유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위인 한국투자금융은 회장·부회장 모두 해외 출장으로 대신 효성이 초청됐다"고 설명했다.

중견기업에서는 정몽원 한라 회장, 손정원 한은시스템 대표, 우오현 SM그룹 회장, 방준혁 넷마블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 39명이다.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멤버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수현 정책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이 배석하고 정부에서는 흥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기업활동과 관련된 부처가 모두 참석해 기업인들의 질문에 답변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책임자들도 함께한다.

간담회는 문 대통령 인사말을 제외하고 사전에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자유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청와대는 대한상의를 통해 사전에 기업인들의 질문을 받았다. 사후이라도 모든 질문에 답변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사전 질문지와 관계없이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문 대통령과 관련 부처 장관이 즉석에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대기업 회장들의 발언도 적극 유도키로 해 기업 총수들이 규제개혁, 노동개혁, 기업인 상속제도, 공정경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어떤 얘기를 할지 주목된다. 신동민 기자 lawsdm@

文 대통령 '불편한 관계' 민노총 만난다

민노총 경사노위 참여 관심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를 직접 만나 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에도 불구하고 민노총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답보 상태에 빠진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1일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우원식의 원이 주선해서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경제계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듣는 취지였고 민노총 요구와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동계가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민노총 위원장을 만나려는 것은 28일 열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노총이 합류할 수 있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라는 얘기도 나온다. 일각선 민노총이 조만간 경사노위에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결립들은 민노총의 무리한 요구다. 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한 정부의 속도조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노총이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불편한 관계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정부는 민노총에 빚진 게 없다"며 "민노총이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올해부터 직업훈련 혜택

올해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들도 직업훈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도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는 직업훈련에 참여해 능력을 개발할 기회가 없어 임금 상승 기회가 부족하고 기술 변화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누리집(www.hrd.go.kr)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넥타이 풀고 합시다"

노영민(오른쪽) 비서실장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자신의 넥타이를 풀고 있다. 왼쪽은 주영훈 경호처장. 뉴시스

폼페이오 "북미회담 세부 논의"… 곧 고위급 회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3일(현지시간)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세부 사항을 도출하고 있다"고 밝혀 다음 달 개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중동지역을 순방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CBS 방송과 화상 인터뷰에서 2차 북미회담이 2월 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미 핵화 협상에 대해 "공급적인 목표는 미국 국민의 안전"이라고 말해 선(先) ICBM 폐기 쪽으로 방향을 튼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미 고위급회담이 곧 열릴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기자들을 만나 "북한과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미국과 북한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장

소를 협상하고 있으며 아주 머지않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내달 중 베트남에서 열자고 북한에 제안했으며, 북한은 이 제안을 검토 중으로 아직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현재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유력하게 꼽히는 곳은 베트남과 태국이다. 특히 베트남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유치에 적극적이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인 3월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후 남북 정상회담 입장을 밝힌 데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1차 남북 정상회담 때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기념 사업 추진을 논의했고 판문점 선언에 그 취지를 담은 바 있어서다. 신동민 기자 lawsdm@

동네 편의점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

안녕?

“우리동네를 지키는 **아동학대 국민감시단** 이 되어주세요”

가벼운 인사처럼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아동학대예방
아동이 행복한 우리동네, 주위를 살피는 당신의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0~25%>

“美 자동차 관세, 자율주행·전기차에만 부과될 수도”

美 무역전문 매체 “상무부, 제한관세 등 3가지 방안 제시”
ACES車 기술 수입 제한 관측... 국내 완성차 상대적 유리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수입 자동차 추가 관세가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에 국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14일 미국 무역 전문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자동차 수입에 따른 미국 산업의 피해와 해결 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에서 3가지 수입규제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 방안은 모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추가로 20~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25%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 5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상무부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을 때부터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됐다.

두 번째 방안은 미래형 자동차 기술인 자율주행(Automated), 커넥티드(Connected), 전기화(Electric), 차량공유(Shared) 등 ACES 차량 기술 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ACES 차량 또는 ACES 관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일률적인 관세보다는 적용 범위가 좁고, ACES 기술보다는 넓은 절

충형 관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부가 이런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여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한다. 상무부의 자동차 보고서 제출 기한은 내달 17일이다.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상무부가 먼저 만든 초안은 일률적인 관세만 제안했을 뿐 특정 기술에 대한 관세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니 미국의 수입차 관세 무계중심이 ACES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동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관세 범위를 ACES로 한정하는 것은 ‘중국제조 2025’를 비롯해 중국의 첨단기술 확보를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ACES에만 관세가 부과되면 현대차 등 국내 완성차 업계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전체 대미 수출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서다. 다만 최신 중대형 모델은 일정 부분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관세를 전부 피하는 건 어려울 전망이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보편적 아동수당 10만원’ 오늘부터 신청

6세 미만 모든 아동이 대상
부모 소득·재산 관계없고
전·월세 계약서도 불필요

올해부터 아동수당(10만원) 지급 대상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15일부터 추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기존에 부모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아동수당 지급에서 제외됐던 아동들은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8월 적용 대상은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다. 9월부터는 아동수당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관련 사항은 7~8월 중 별

도의 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신규 지급 대상에 대한 1~3월분 수당이 4월 25일 한 번에 소급 지급된다. 개정 아동수당법이 4월 1일 시행되고, 이때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해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약 20만 명의 아동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탈락했던 아동이 약 11만 명, 기준 초과를 예상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아동이 약 9만 명이다.

이 중 기준 탈락자에 대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예정이다.

직권신청 대상 보호자에게는 사전안내문이 발송되며, 신청 당시 아동의 보호자나 지급계좌가 바뀌었다면 읍·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정하면 된다.

아동수당 수급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사전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아동은 직접 신청해야 한다. 단 소득·재산기준이 폐지돼 앞으로는 전·월세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아동의 보호자 중 한 명이 신분증을 갖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출생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된다. 지난해 11~12월 출생 아동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받을 수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성윤모 장관
UAE 방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UAE(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행정청 칼둔칼리파알-무바락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 산업통상자원부

“3년물 금리 1.7%면 매력적... 금리 더 떨어져도 될듯” 한은에 금리인하 주문? 구윤철 차관 발언 논란

기재부 “外人 투자자 입장에서 한 말” 해명

“국고채 3년물 금리가 1.7% 정도면 매력적인 수준으로 보인다. 금리가 더 떨어져도 될 듯 싶다.”

구윤철(사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4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국제시장 감담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하고 자본시장이 잘 발달돼 있다. 그런 면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국내시장은)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1.75%라는 점과 이에 따라 단기물 금리가 추가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었다. 사실상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를 주문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서다. 실제 구 차관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미중간 무역협상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미 연준(Fed) 파월 의장도 통화정책 완화를 시사하고 있다. 국제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한 터였다.



이상구 기재부 국제과장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동일 신용등급 국가들과 비교할 때 그렇다고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국고채 50년물 물량을 늘려달라는 주문에는 사실상 선을 그었다. 구 차관은 “물량 공급만을 위해 마냥 늘릴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앞서 올해부터 두 달에 한 번씩 50년물을 정례 발행키로 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 같은 조치로 장기물 수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고채 50년물은 2017년 3월 2190억 원을 처음 발행한 후, 지난해 분기에 한 번씩 총 네 차례에 걸쳐 2조1250억 원어치를 발행했다.

기재부는 국제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경우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해 사전에 마련한 계획에 따라 가용한 시장 안정조치를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글로벌 금리가 오르고 국내 장기물 금리를 중심으로 상승할 경우 구체적인 방안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KYOBO 교보증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7-04981호
교보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74-191호(2018.11.14~2019.11.13)

현명한 소비습관 슈퍼그레이트 WIN.K

교보증권 WIN.K 체크카드

교육비 할인 서비스

국내 전 학원업종 10% 청구 할인
교보문고, 핫팩스,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및 어학시험 응시로
10% 청구할인

부가 상품 서비스

스타벅스, 커피빈, 투썸플레이스 등
CU, GS25, 세븐일레븐 등 10% 청구할인
SKT, KT, LGU+ 이동통신요금 10% 할인

주유 할인 서비스

SK주유소,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리터당 100원 할인

CMA 금융서비스혜택

RP에 자동투자해서 수익 제공
주식거래까지 One Stop 서비스

연회비 없이 누리는 신용카드급 혜택

(전월 실적 기준 충족 시, 월 최대 4만 3천원 캐시백)

1

Win.K 설치 후
비대면계좌개설 시작

2

본인인증
Win.K 체크카드 선택

3

주소 등
정보입력

4

신분증 촬영

5

계좌인증

6

신청완료
카드배송시작

위 혜택이 실화인지 지금 바로 신청해보기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비대면을 통한 당사 최초 계좌개설 고객의 경우 MTS 매매 시 0.014%의 주식매매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체크카드 관련 상세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또는 소비자지원센터(1544-09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차이나 드림 끝났다”... 中에서 짐 싸는 美기업

‘미디어 공룡’ 바이어컴 이어 맥도날드·휴렛패커드 등도 철수 채비
“완전한 포기 아냐” 中 기업에 지분매각 등 규제 회피 방안 검토

미국의 미디어 공룡 바이어컴(Viacom)이 중국의 주요 사업 지분 매각을 논의 중이다. 미국과 중국 간 정치적 긴장 심화와 중국 당국의 규제 강화로 사업 확장이 어려워진 미국 기업들이 점차 중국 시장에서 짐을 싸는 모양새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어컴이 중국 MTV와 니켈로디언 지배 지분을 인도의 릴라이언스인더스트리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어컴은 지난해에도 벤처 자회사 지분을 릴라이언스에 매각한 바 있다.

뉴욕에 본사를 둔 바이어컴은 20여 년 전부터 중국에서 영업 기반을 다져왔다.

바이어컴의 경영진은 중국의 인구 증가로 엄청난 성장의 기회가 올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중국 정부의 영화 배급 쿼터제와 외국 방송사에 대한 규제 등으로 인해 수 차례 좌절을 맛보아 했다.

바이어컴의 자회사인 파라마운트픽처스는 영화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와 ‘닌자거북이 TMNT’로 중국 박스오피스에서 기록을 세우기도 했지만 이외에 배포할 수 있는 영화 수와 유형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맥도날드나 휴렛패커드 등 다른 미국 대기업들도 수십 년 전부터 중국에서 시장을 다져왔지만 최근 몇 년 새 사업 철수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

미국 기업의 중국 사업체 철수

(단위: 억 달러, 2013년 이후 규모 큰 순서대로)

기업명	매각가
우버테크놀로지, 우버 차이나(지분 100%) 매각	70
휴렛패커드, H3C테크놀로지스(지분 51%) 매각	31
맥도날드, 맥도날드차이나 매니지먼트(지분 80%) 매각	21
카디널헬스, 카디널헬스차이나(지분 100%) 매각	12
비스테온, 안팎비스테온오토모티브트림시스템스(지분 50%) 매각	12

※ 출처: 월스트리트저널(WSJ), Dealogic

WSJ는 투자은행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부 다국적 기업은 중국 법인 지분 매각을 넘어 아예 중국에서 철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은행과 컨설팅 회사들은 미국 기업들이 어떻게 중국에 진입할 수 있는지 지침을 주고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이들 회사들

이 중국 시장에서 손실 없이 빠져나가거나 사업 기회를 재모색하는 방안을 컨설팅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나 JP모건체이스의 투자 은행 부문과 아시아 지역 투자 부티크들은 최근 이들 회사에 중국 사업 전략을 다시 짜주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

바이어컴처럼 타국 기업이나 중국 기업에 지분을 팔아 중국 당국으로부터의 규제 위험을 줄이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고려된다. 중국 정부가 시장 개방을 약속하고서도 규제로 미국 기업들의 목줄을 죄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중국인민은행이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제출한 위안화 결제처리 신청서 접수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2017년 신용카드 시장에 외국기업 참여를 허용키로 했지만 아직 실

질적으로 벽을 허물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업들이 중국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은 중국 시장이 기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막대하기 때문이다.

WSJ 집계에 따르면 S&P500 기업 중 중국에서 가장 매출을 많이 낸 상위 20곳의 2017년 중국 매출은 1584억 달러로 같은 해 중국의 미국 수입 규모(1299억 달러)를 초과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중국 기업은 물론이고 미국 기업의 자국내 성장까지 압박하고 있다.

컨설팅회사 알릭스파트너스의 브랜트 칼슨은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희미해지면서 기업들이 중국에서의 사업 전략을 전면 재설정하고 있다”며 “여전히 중국은 무시하기엔 너무 큰 시장”이라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원유수요 줄어들라” 길어진 무역분쟁에 가슴 졸이는 OPEC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석유수출국기구(OPEC) 경제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하메드 바르킨도 OPEC 사무총장은 13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석유시장 전망에 대해 낙관하면서도 미·중 무역 전쟁 여파로 중국과 인도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포럼에 참석한 그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원유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매우 낙관적”이라며 “그러나 계속되는 무역 분쟁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르킨도 사무총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가 목격한 세계적으로 동조화된 장기간의 경제 성장은 주로 국제무역의 성장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약을 주는 모든 조치는 에너지 수요의 확장과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재 미국과 중국, 인도 이외 다른 모든 지역은 에너지 수요 면에서 가장 밝다. 그만큼 지지부진한 미·중 무역협상 진행에 대한 우리의 걱정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으로 2017년 글로벌 원유 수입의 18.6%를 차지했다. 인도는 원유 수입에서 ‘포스트 차이나’로 한창 주목받고 있다. 에너지 컨설팅 업체 우드맥켄지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4년이면 인도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원유 수요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CNBC는 무역 전쟁이 중국의 경제 성장에 심대한 타격을 주면 아시아 나머지 국가들도 큰 충격을 받을 것이며 이는 OPEC 회원국들의 재정수입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OPEC의 맹주인 사우디는 탈석유 경제로 전환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러기 위해서는 석유 재정수입 뒷받침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사우디가 재정 균형을 이루려면 유가가 배럴당 75~80달러 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네수엘라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사실상 국가부도 상태에 빠진 것과 마찬가지로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2019 북미 국제 오토쇼’ 개막을 하루 앞둔 13일(현지시간) 한 근로자가 코보센터에 전시된 기아차의 트럭 앞을 점검하고 있다. 디트로이트/AFP연합뉴스

막오른 북미 오토쇼... 전기차 패권경쟁

세계 최대 자동차 전시회 중 하나인 ‘북미 국제 오토쇼’가 14일(현지시간) 미디어데이를 시작으로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막을 올렸다.

뉴욕타임스(NYT)는 올해 디트로이트 오토쇼의 주인공은 단연 전기자동차라며 자동차 업체들이 향후 3년간 출시할 수십종의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소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차, BMW 미니, 닛산과 아우디는 올해 미국에 출시될 새 전기차를 전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는 기존 자동차 소유주들 중 상당수가 휘발유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컨설팅 업체 앨릭스파트너스의 마크 웨이크필드 매니징 디렉터는 “자동차업체들은 주로 정부 보조금이 있으며 탄소가스 배출 제로(0) 차량 판매를 독려하는 중국과 유럽을 겨냥해 전기차를 개

현대·기아 주력 라인업 공개 포드·닛산, 전기 SUV 박차

발해왔다”고 말했다.

미국 포드자동차는 내년 자사 베스트셀러 ‘머스탱’에서 영감을 얻은 새 전기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출시할 계획이다. 포드는 향후 5년간 110억 달러(약 12조 원)를 투입, 16종의 전기차와 24종의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을 출시할 예정이다.

포드에서 전기차 개발을 전담하는 팀에 디슨의 테드 캔니스 대표는 “아직 초창기이나 사람들이 전기차를 찾기 시작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는 적시에 전기차 개발에 나섰다”고 말했다.

제너럴모터스(GM)도 강한 의욕을 품고 있다.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

)는 11일 ‘쉐보레 볼트(Bolt) 전기차 생산을 늘리고 캐딜락 라인업에서 전기차를 핵심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배터리 기술의 발전과 가격 하락이 전기차 시대를 가능케 할 것으로 보고 있다. NYT는 전기차 주행거리가 단기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배터리 충전 속도를 크게 단축시키는 것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포드와 닛산 등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SUV 등 대형 전기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브라이언 매리그노 닛산 전기차 판매·마케팅 전략 이사는 “아직 전기차가 다양하지는 않지만 소형과 중형 SUV 모델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며 이는 더 많은 소비자를 끌어올 것”이라며 “2년 안에 전기차 시장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미국 뉴저지주 해컨색의 한 시어스 매장에 회사 로고가 걸려 있다. 해컨색/AP뉴스

시어스 몰락시킨 아마존 폐점된 매장까지 눈독

미국 아마존 산하 유통 전문 유통업체 홀푸즈마켓이 작년 10월 파산보호를 신청한 백화점 체인 시어스의 폐쇄 매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아후파이낸스는 홀푸즈마켓이 시어스의 폐쇄 매장을 인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마존은 미국 온라인 시장을 장악하고 나서 오프라인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다. 현재 홀푸즈마켓의 미국 매장 수는 약 470 곳인데 이를 늘리려는 것. 업계에서는 기존 시어스 매장이 일반적으로 보행자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있어 매력적이라고 평가한다.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홀푸즈마켓은 시어스의 몬태나주와 와이오밍주 매장을 위치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홀푸즈 임원들은 지난 2017년 여름 문을 닫은 유타주 시어스 매장이 있던 곳을 방문하기도 했다.

시어스는 최근 3년간 123개 시어스 매장과 205개 케이마트 매장을 폐쇄했으며 수천 명의 근로자를 감원했다.

미국 파산법원은 14일 시어스 파산 경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애드워드 램퍼트 시어스홀딩스 회장은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자 50억 달러(약 5조5980억 원)에 입찰할 예정이다. 램퍼트의 계획이 실패하면 시어스는 청산에 직면하게 된다. 한때 미국 최대 소매업체였던 시어스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시어스는 1893년 시어스로버앤드컴퍼니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1906년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하는 등 미국 자본주의 역사와 궤를 같이 했다. 1980년대는 금융서비스로도 사업을 확장해 디스커버 신용카드를 도입하기도 했다. 무려 1970년대와 80년대, 20년에 걸쳐 최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월마트, 타깃 등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후발주자에 밀리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이후 아마존의 부상은 치명타를 입혔다.

배준호 기자 baejh94@

2019년, 새로운 내일을 향해 첨단기술이 함께 뛰겠습니다

2018년을 함께 해주신 대한민국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SK하이닉스는 첨단기술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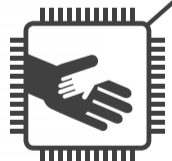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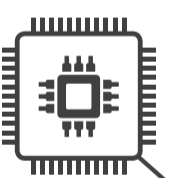


황금돼지야.
올해 잘 부탁해~~
나처럼 열심히 뛰려면
너 아마 다이어트 좀 해야 돼지?

그래 나도 올해엔
열심히
뛰어볼 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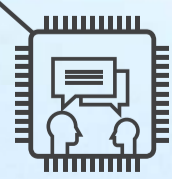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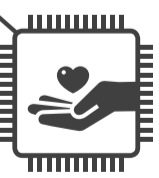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첨단기술을 만들고
[DDR5 D램 개발, 96단 4D 낸드 플래시 개발]



모두와 함께
잘 사는 방법을 고민하며
[M15 준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장애인 일자리 확충]

행복하고 안전한 세상을 꿈꾸고
[치매노인을 위한 행복 GPS 지원
독거노인 안전을 위한 시기기 실버프렌드 무상지원]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할까를
고민해왔던 2018년
[SK하이닉스 광고-대한민국 광고대상 통합 대상 수상]

수빅조선소發 재정난 직격탄... 연내 상환 빚만 1.2兆

한진중, 경영정상화 안갯속

한진중공업 채권단이 자율협약 2년 연장과 함께 동서울터미널과 잔여 울도 부지의 연내 매각을 내세운 배경에는 종속회사인 HHIC-Phil Inc.(수빅조선소)의 부실화가 발단이 됐다. 채권단 입장에선 또다른 유동성 위기에 대한 염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빅조선소에 발목 잡힌 경영 정상화 = 수빅조선소는 초기 청사진과 달리 한진중공업 경영 정상화의 발목을 잡았다. 그동안 심각한 영업적자로 한진중공업 전체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번 기업회생 절차로 한진중공업의 유동성에도 그림자가 짙어졌다.

한진중공업 실적에 수빅조선소가 미치는 영향은 별도 재무제표와 연결 재무제표를 비교하면 고스란히 드러난다. 별도 재무제표 기준 한진중공업의 영업실적은 2016년 흑자전환 됐다. 당시 493억 원을 기록한 뒤 2017년에도 867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3분기까지 73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3년 연속 흑자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반면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상황은 정반대다. 2016

년, 2017년 각각 793억 원, 1167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빅조선소의 당기순손실은 2016년 3560억 원, 2017년 2462억 원 등 전체 적자 폭을 훨씬 뛰어넘었다.

유동성 상황도 좋지 않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한진중공업의 유동자산은 1조 6982억 원, 유동부채는 2조 8792억 원이

었다. 한마디로 1년 안에 상환해야 하는 빚이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보다 1조 2000억 원가량 많은 셈이다. 한 회계

법인 관계자는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크게 초과하고 있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

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진중공업은 2004년 필리핀에 수빅조선소를 세우고 중대형 상선을 위주로 건조해왔다. 하지만 조선업 불황의 직격탄에 생산실적이 급감해오던 수빅조선소는 결국 1월 초 기업회생 신청에까지 이르렀다. 앞으로 필리핀 법원은 120일 안에 파산과 회생절차 개시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단과 한진중공업 입장에서 최선은 수빅조선소 매각이지만 성사 가능성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매각이 안 될 경우 필리핀 현지 채권단에 출자전환과 분할상환 등을 유도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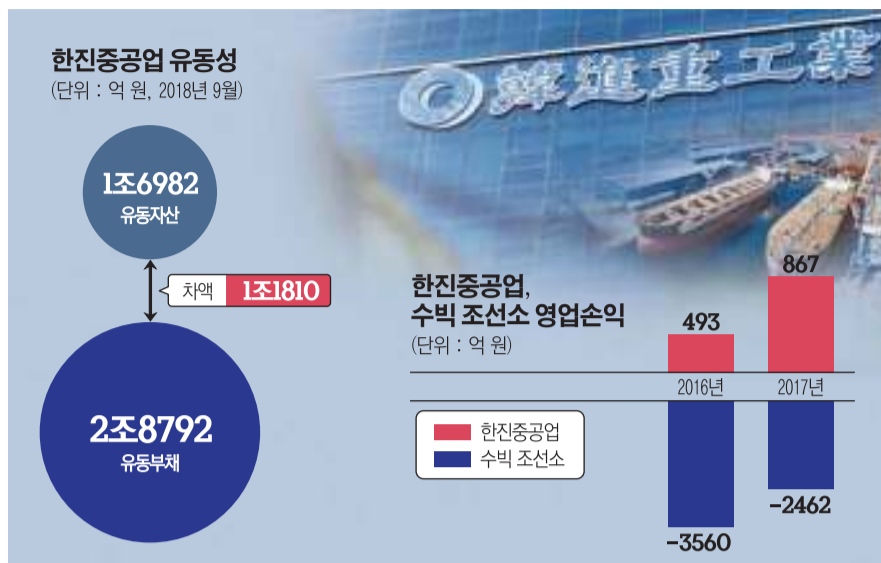
◇동서울터미널·울도부지 매각해 유동성 탄환 마련할까 = 이런 상황에서 채권단이 연내 동서울터미널과 잔여 울도부지 매각을 언급했지만, 실제로 연내 매각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2016년 자율협약을 맺을 당시 채권단과 한진중공업은 자산과 지분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를 약속했다. 2018년까지 총자산 2조 1360억 원과

지분 305억 원을 매각해 총 2조 1665억 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까지 한진중공업은 약 1조 4000억 원, 전체의 65% 수준만큼 이행했다. 이 중 나머지 자산이 동서울터미널과 잔여 울도 부지다. 계획대로 올해 동서울터미널과 울도부지 잔여 자산을 매각하면 한진중공업은 약 7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내 매각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채권단의 요구로 이미 두 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유동화대출(ABL)을 한 상황”이라며 “당장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서둘러 할값에 매각할 유인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올해 중에 매물로 내놓더라도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희망 판매가가 좁혀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우건설도 부동산 매물들을 내놓았지만 오랫동안 팔리지 않고 있는데 그건 애초에 대우건설이 가치를 높게 측정했기 때문”이라며 “만약 한진중공업이 동서울터미널을 매물로 내놓는다고 해도 희망 가격을 맞추는 매수자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배리 기자 kimstar1215@



한진중공업은 2004년 필리핀에 수빅조선소를 세우고 중대형 상선을 위주로 건조해왔다. 하지만 조선업 불황의 직격탄에 생산실적이 급감해오던 수빅조선소는 결국 1월 초 기업회생 신청에까지 이르렀다. 앞으로 필리핀 법원은 120일 안에 파산과 회생절차 개시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단과 한진중공업 입장에서 최선은 수빅조선소 매각이지만 성사 가능성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매각이 안 될 경우 필리핀 현지 채권단에 출자전환과 분할상환 등을 유도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서울터미널·울도부지 매각해 유동성 탄환 마련할까 = 이런 상황에서 채권단이 연내 동서울터미널과 잔여 울도부지 매각을 언급했지만, 실제로 연내 매각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2016년 자율협약을 맺을 당시 채권단과 한진중공업은 자산과 지분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를 약속했다. 2018년까지 총자산 2조 1360억 원과

지분 305억 원을 매각해 총 2조 1665억 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까지 한진중공업은 약 1조 4000억 원, 전체의 65% 수준만큼 이행했다. 이 중 나머지 자산이 동서울터미널과 잔여 울도 부지다. 계획대로 올해 동서울터미널과 울도부지 잔여 자산을 매각하면 한진중공업은 약 7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내 매각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채권단의 요구로 이미 두 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유동화대출(ABL)을 한 상황”이라며 “당장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서둘러 할값에 매각할 유인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올해 중에 매물로 내놓더라도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희망 판매가가 좁혀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우건설도 부동산 매물들을 내놓았지만 오랫동안 팔리지 않고 있는데 그건 애초에 대우건설이 가치를 높게 측정했기 때문”이라며 “만약 한진중공업이 동서울터미널을 매물로 내놓는다고 해도 희망 가격을 맞추는 매수자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배리 기자 kimstar1215@



롯데손보 전략워크숍 성료 김현수 롯데손해보험 대표가 11일 충남 부여에 있는 부여롯데리조트에서 전략워크숍을 열고 “올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경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손해보험

자동차 보험료, 내일부터 오른다

정비수가 반영 평균 3%대 인상

주요 손해보험사가 16일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한다. 보험료 인상폭은 지난해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분을 보험료 요율에 반영한 3% 안팎에서 결정됐다.

14일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메리츠화재와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이 16일 인상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는 현대해상 3.9%(이하, 개인용 기준), 한화손해보험 3.8%, 메리츠화재 4.4%, DB손해보험 3.5% 등이다. 이들은 “자동차 정비공임 인상과 실적 손해를 초과를 반영했다”고 공지했다.

또 KB손해보험은 19일 3.4%를 인상하고, 삼성화재 역시 31일 3%를 올릴 전망이다. 이 밖에 롯데손해보험(3.5%)과 AXA다이렉트(3.2%), 흥국화재(3.6%)도 21일부터 이달 안으로 순차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증에 따라 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손해보험사 3분기 누적 순이익은 2조 9000억 원으로 2017년 동기 대비 6200억 원 이상 감소했다. 특히 보험영업 부문에서 9800억 원가량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정용욱 기자 dragon@

차기 저축은행중앙회장

남영우·박재식·한이현 ‘3파전’

차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후보 7명 가운데 남영우 전 한국투자저축은행 대표와 박재식 전 한국증권금융 대표, 한이현 전 국회의원이 최종 후보로 압축됐다.

저축은행중앙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14일 오후 최종 면접 대상으로 이들을 선정, 16일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다. 최종 후보자는 21일 회원사 과반 참

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차기 회장에 선출된다.

다만 후보자 공모에는 역대 최다인 7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만큼 최종 후보자를 복수로 선정, 총회에서 회원사 표결로 다수 득표자가 최종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현재 저축은행업계는 회장 후보의 출신과 무관하게 업계 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과 79개 저축은행중앙회를 한데 묶을 수 있는 인물을 원하고 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임단협 장기화... 동력 잃어가는 국민銀 노조

KB국민은행 노조가 사측과의 임금 단체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신청과 사측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작업에 들어갔다. 사실상 교섭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압박카드’인 셈이지만, 파업 동력이 떨어지면서 노조가 원하는 그림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앞서 13일까지 진행됐던 실무·대표자 병행 교섭에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 및 페이밴드(호봉상한제) 폐지 등 각론에서의 의견 차이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노조는 집중교섭까지 미뤘던 중노위 사후조정을 이날 오후 3시께 접수했다. 또 사측에 대한 고소·고발 및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찰 요구도 진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는 노조가 8일 열린 총파업에서 사측이 조합원의 파업 참가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사측의 합의가 필요한 사후 조정에도 국민은행 측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노조의 이러한 ‘강경책’은 사측과의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사측이 쟁점 사안에 대해 쉽게 양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국민은행 희망퇴직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

중노위 조정·법적대응 추진 등 ‘강경책 카드’ 현실성 떨어져

실효성·명분·여론 비난 여파 교섭 무계추 사측으로 기울어

업계 “조합원들 피로감 누적 추가 파업 참여율 떨어질 것”

상되는 가운데 사측은 ‘성과’와 ‘분배’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올은 행업도 지난해와 비교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파업사태에 대해 사측 집행부가 ‘전원사퇴’ 카드를 꺼낸 것도 이러한 연유다.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는 “노조의 안은 비용 부담이 큰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협상 타결이 미뤄지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부담이지만, 현재로서는 교섭의 무게중심이 사측으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짙다. 파업 실효성에 대한 판단도 엇갈리고 있고 여론도 좋지 않다. 노조는 설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2차 파업을, 3월까지 총 5차례의 파업을 예고했지만 사측은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다. 파업을 무기로 쓰기에는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길어진 협상으로 인해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파업은 명분이 중요한데, 국민은행 노조에 게 지금 명분이 있는지는 의문스럽다”면서 “파업이 길어질수록 조합원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1차 파업보다는 참여율이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집중교섭 결렬에도 국민은행은 노조와의 만남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극적인 타결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다만 국민은행은 파업으로 미뤄졌던 본부장(PG장)과 부점장, 그룹 간 이동 인사를 이번 주 단행할 예정이다. 그다음 주에는 정기인사와 부임 인사가 진행된다. 객잔산 기자 jinsan@

DB손보 “치매보험, 유병자·고령자도 가입 가능”

착하고간편한간병치매보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유병자와 고령자도 간편 고지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DB손해보험의 ‘착하고간편한간병치매보험’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보험은 가입 후 상해 및 질병으로 노년장기요양보험 1~4등급 수급 대상자가 된 경우 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치매도 증상에 따라 경증, 중등증, 중증으로 구분해 정도가 심할수록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치매 보장 범위도 전체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및 파킨슨병까지 다양하게 구성해 고객이 치매의 보장 범위와 심도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비싼 보험료가 부담이라면 해지 환급금 미지급형을 선택하여 30~40% 저렴하게 가입할 수도 있다.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은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다.

DB손보 관계자는 “이 보험은 고령층에



사진제공 DB손해보험

꼭 필요한 간병과 치매를 최대 100세까지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첨단운전자 보조시스템〉

만도, 자율주행차 개발 속도...ADAS 사업부 독립

미래차 핵심 레이더·카메라 등 최근 ADAS 매출 확대 추세
“올 수주 20% 늘어난 12조 전망”
독일·인도 등 R&D 거점 투자

만도가 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부문을 독립 조직으로 만들어 미래차 연구개발에 속도를 낸다.
14일 만도는 올해 본격 실행에 들어간 BU제(Business Unit-제품 중심조직)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인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부문을 독립시킨



정동원 만도 회장

다고 밝혔다. 또 BU제 전환을 통해 △ ADAS △브레이크 △스티어링 △서스펜션의 네 개 제품조직으로 나눠 제품조직장이 각 부문의 경영을 독립적으로 책임지는 소(小)사장제를 도입한다.

만도는 이 같은 조직개편을 통해 부문별 손익 통제를 강화하고, 급변하는 완성차 및 부품시장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ADAS 부문은 자율주행 기술 핵심인 레이더, 카메라, DCU(통합제어시스템) 등을 포함한다. 이 회사 관계자는 “ADAS 관련 제품과 기술은 발전 속도가 빨라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며 “ADAS BU의 독립으로 민첩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도는 향후 자율주행기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2017년 3분기	4분기	2018년 1분기	2분기	3분기
매출	1조3509	1조5101	1조3462	1조4334	1조3990
영업이익	-956	635	433	663	501
당기순익	-916	358	247	391	270

만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판교에서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시험운행에 성공했다. 만도는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 면허를 취득한 데 이어 올해 해외 글지의 정보기술(IT) 기업과 전략적으로 협력 관계를 맺는다는 계획이다.

연구개발(R&D) 투자에도 힘을 쏟는다. 만도는 ADAS, IDB(통합전자브레이크), E-드라이브 등 회사의 중장기적 캐시카우(수익창출원) 위주로 R&D 투자를 단행할

방침이다. 또한 이와 관련한 투자 규모를 매출액의 5%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만도는 2017년 인도 방갈로 제2 연구소, 2018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R&D센터를 완공하는 등 R&D 거점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2022년에는 만도의 글로벌 R&D를 진두지휘할 판교 제2 R&D센터 ‘넥스트 M’이 완공된다.

한편 ADAS 부문 매출액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 회사의 전체 매출에서

ADAS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5.0%에서 2017년 6.4%로 확대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만도의 올해 매출액 또한 직전 해에 비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도는 이날 올해 12조 원 규모의 수주를 하겠다는 공격적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수주 규모(10조 원)에 비해 20% 쉼 수차다.

만도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수주목표를 초과 달성했던 전례로 볼 때 올해 말 수주실적도 12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수요처가 현대·기아차에 집중돼 있는 상황을 개선해 점차 글로벌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만도는 해외 수주 확대에 힘입어 2023년 ADAS 부문만 매출이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본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무풍·360도...공기청정기 어떤 게 좋죠

삼성 큐브, 아토피 완화 효과
LG퓨리케어, 교실 넓이 정화
위니아, 유해 냄새 감지 기능



왼쪽부터 삼성큐브, LG 퓨리케어 360도, 위니아, 다이슨 퓨어 핫앤쿨.

각사 제공

연일 미세먼지 경보가 ‘나쁨·매우 나쁨’을 울리는 가운데, 미세먼지 제거 기능뿐만 아니라 넓은 정정면적 확대 등 고도화된 기능을 탑재한 공기청정기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가 현재 200만 대에 이르렀다. 2016년 100만 대에 불과했던 시장이 불과 3년 사이에 2배가량 성장한 것이다. 수요 증가로 인해 가전업체들은 최근 제각기 다른 장점을 갖춘 공기청정기를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의 삼성 큐브는 △하이브리드 집진 필터를 통한 초순도 청정 성능 △찬바람 걱정 없는 무풍 청정 등과 같은 기능을 탑재했다. 하이브리드 집진필

터는 초미세먼지(2.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미세먼지를 99.999%까지 제거한다.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청소년과 오재원 주임교수 연구팀과 진행한 연구를 통해 삼성 큐브가 아토피 피부염, 청소년 알레르기 질환 호전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LG전자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는 정정면적이 최대 100㎡에 달한다. 이는 일반적인 초등학교 교실면적(66㎡)의 1.5배를 청정할 수 있는 수준이다.

강한 바람을 만들어 깨끗한 공기를 멀리까지 보내는 방식으로 실내 공기 순환

을 돕기 위해 ‘클린부스터’ 장치도 장착했다. 또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에 탑재된 6단계 토탈케어 플러스는 황사, 초미세먼지, 알리지 유발물질은 물론 스모그 원인 물질도 제거한다.

대우위니아의 위니아 공기청정기는 PM 0.5 ‘디지털 공기청정기 센서’를 적용해 각종 유해 냄새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토출부 상단에 위치한 전면 LED는 소비자가 실내 공기 상태가 어떤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이슨이 작년 12월에 선보인 퓨어 핫 앤 쿨 공기청정기는 다이슨의 에어 멀티플라이어 기술과 360도 회전 기능을 탑재했다.

이를 통해 방안 구석 구석에 초당 최대 290리터의 정화된 공기를 분사해주는 장점이 있다. 전면부의 LCD 창은 퓨어 핫앤쿨 공기청정기가 작동하는 실내에서의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 분포 정도를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한양대 기자 yeongdai@



포스코 ‘기업 실무형’ 취업교육생 수료식 모습.

‘돈 받고’ 듣는 실무 꿀팁 포스코, 5500명 취업교육

포스코가 취업준비생(취준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취업교육이 호평을 받고 있다. 포스코는 최근 5년 동안 연간 800명의 취업준비생에게 실무교육을 전수했으며, 향후 5년간 다양한 청년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총 55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지난달 14일 인천 포스코인재창조원에서 취업준비생 30명을 대상으로 첫 번째 ‘기업 실무형 취업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생들은 기업 인사담당자를 직접 만나 대화를 하는 ‘토크 콘서트’에 참여했다. 또 포스코그룹 임직원과 함께 기업의 경영방식을 배울 수 있는 게임 활용 경영시뮬레이션,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론 등을 진행하며 취업에 필요한 기본역량과 실무역량을 강화했다.

교육생 대표 임수정 씨는 “취업준비가 그동안 외로운 싸움이었는데 대학에서 배우기 힘들었던 기업실무형 과제 수행 등을 포스코와 함께 하니 큰 힘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포스코는 이번 교육 성적 우수자에게는 포스코 인재창조원 인턴 기회를 부여, 과제수행 우수팀은 태블릿 PC, 교육 수료자 전원에게는 50만 원 상당의 교육수당을 지급했다.

포스코는 현재 1월 ‘기업실무형 취업교육’을 진행 중이며, 2~3월 교육 대상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중이다. 교육은 인천 송도·포항·광양 포스코 인재창조원에서 3주간 무상합숙으로 진행된다. 포스코는 5년 동안 연간 800명의 취업준비생에게 실무교육을 전수했다. 이외에도 포스코는 창업 단계에서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 인큐베이팅 스쿨’과 4차 산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청년 인공지능(AI)·빅데이터(Big Data) 아카데미’도 운영하는 등 앞으로 5년간 총 5500명의 청년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창업 인큐베이팅 스쿨은 현재 3월 교육생을 모집 중이며, ‘청년 AI·빅데이터 아카데미’는 1차수 교육(1~4월)이 포스텍에서 진행 중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실적 악화’ 두산중, 베트남 조직 군살 뺀다

현장지원 담당 O·C 폐지

두산중공업이 베트남 시장 재정비에 나선다. 최근 단행한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해외시장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두산중공업은 11일 조직개편을 통해 베트남 Operation Center(이하 베트남 O·C)의 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베트남 O·C는 현지에 위치한 현장 지원 조직으로 공동물품 구매·현지인력관리

(HR)·총무 업무 등을 담당해왔다. 두산중공업은 베트남 O·C의 잔여 업무를 현장관리부와 베트남 생산법인인 두산비나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베트남은 두산중공업의 주요 해외시장으로 꼽힌다. 두산중공업은 2007년 베트남 정부와 협력해 3억 달러(약 3300억 원)를 투자해 현지 생산법인인 두산비나를 설립했다. 이후 이 회사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베트남에서 7개의 프로젝트(약 7조 원 규모)를 수주한 바 있다.

베트남 O·C 폐지는 이 회사의 전사적인 운영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최근 실적 악화에 직면한 두산중공업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다. 동시에 기존 6개 BG(Business Group)를 3개 BG로 통폐합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베트남 O·C의 기존 역할이 불분명했다는 점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더한다. 두산중공업의 베트남 영업은 하노이 지점에서

아워)에서 78Ah까지 EV, PHEV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세대별 배터리 셀 라인업을 선보였다.

또 배터리 4대 핵심 소재(양극·음극· 전해질·분리막) 중 전해질을 액체가 아닌 고체물질로 대체해 최고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으며, 1회 충전 주행거리도 700km 이상 가능한 전고체전지를 전시해 큰 주목을 받았다.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자동차 업계가 고민하는 것은 에너지 밀도 증가를 통한 주행거리 향상과 전기차 가격 인하 등 크게 두 가지다.

삼성SDI가 소개한 신제품은 혁신적 소재와 디자인을 적용해 에너지 용량을 크게 증가시켰다. 이 셀을 채택할 경우 차량당 셀 숫자가 크게 줄어들어 자동차 제조사 원가 혁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삼성SDI는 기대했다

전영현 삼성SDI 사장은 “전동화, 자율주행, 초연결성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배터리가 자동차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에서 됐다”며 “다양한 차별화 기술과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Auto 2.0 시대를 앞당기고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양대 기자 yeongdai@

삼성SDI 차세대 배터리셀 1회 충전시 700km 주행

2019 디트로이트 모터쇼 전시

삼성SDI가 14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 코보(COBO) 센터에서 열리는 ‘2019 디트로이트 모터쇼(NAIAS 2019)’에서 차세대 배터리 셀을 전시했다고 밝혔다.

삼성SDI의 모터쇼 전시 콘셉트는 ‘Charged for Auto 2.0’으로 ‘Auto 2.0 시대를 위한 충전 완료’라는 의미다.

Auto 2.0은 자율주행, 전동화, 초연결성, 차량 공유화로 대변되는 시대로 2017년 골드만삭스가 첫 도입한 용어다.

삼성SDI는 전시를 △EV(전기자동차)-미래 모빌리티 플랫폼 △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전동차의 매스 앤드 프레스티지화 △LVS(저전압 시스템)-내연기관을 위한 효율성 제고 등 3가지 스토리로 구성했다. 전시회에서 600km 주행이 가능한 배터리 셀과 37Ah(암페어

“30년 기술 격차 좁히자”...대·중기 ‘로봇 동맹’ 활발

〈한국 vs 로봇 선진국〉



국내 스타트업 로보티즈의 휴머노이드 로봇 'OP2'가 공을 차고 있다. 로보티즈는 LG전자가 2017년 12월 90억원을 들여 지분 10.12%를 취득한 로봇 전문기업이다. 리스베이거스/연합뉴스

글 쓰는 순서

- ① 막 오른 폴더블폰 레이스
- ② AI 플랫폼 동맹
- ③ 美·中 사이에 낀 韓 로봇
- ④ 갈 길 먼 자율주행 상용화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 2019 기조 연설 무대에 사상 처음으로 로봇이 등장했다. 기조연설자였던 박일평 LG전자 사장은 로봇 클로이 가이드봇과 함께 연단에 올랐다. 클로이 가이드봇은 박 사장과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다음 연설자를 소개하기도 했다.

한 해 전자·IT 기술 트렌드를 제시하는 CES 2019에선 로봇이 주인공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로봇 신제품을 선보였다. AI(인공지능)·로보틱스 존에는 1000종에 가까운 로봇 제품이 전시됐다.

우리나라 기업 또한 신기술이 담긴 로봇을 선보였다. 작년 CES에서 로봇 클로이 브랜드를 론칭한 LG전자는 올해 사용자 허리 근력을 보조하는 LG 클로이 수트봇을 공개했다. 이로써 LG전자는 △클로이 안내로봇 △클로이 홈로봇 △클로이 청소로봇 △클로이 잔디깎이 로봇 등 총 9종의 클로이 제품을 보유하게 됐다.

LG전자 외에 다른 기업들도 로봇 전시에 열을 올렸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AI 프로젝트로 개발한 '삼성봇' 시리즈와 'GEMS' (웨어러블 보행 보조 로봇)를 공개하며 로봇 사업 진출을 천명했다. 삼성봇 시리즈에는 △사용자 혈압을 체크하는 삼성봇 케어 △집안 공기를 관리하는 삼성봇 에어 △쇼핑몰 등에서 상품 추천, 결제를 돕는 삼성봇 리테일 등이 있다.

작년 9월 웨어러블 로봇인 '의지형 착용로봇'을 생산시설에서 시험 적용한 현대차는 CES에선 걸어 다니는 자동차 '엘리베

삼성·LG 최근 로봇 투자 및 동향

삼성전자	SAMSUNG
2018년 초	이스라엘 로봇업체 '인투이션 로보틱스'에 수십억 원 투자
9월	미국 뉴욕에 로봇공학 연구 담당 AI 센터 신설
11월	삼성벤처투자 실리코밸리 스타트업 '트라이모(Trio)'가 조달한 시리즈 A 투자 참여
2019년 1월	CES서 '삼성봇'과 '웨어러블 보행보조 로봇'(GEMS) 공개
LG전자	LG
2017년 5월	웨어러블 로봇 스타트업 'SG로보틱스'에 30억 원 투자 및 기술 협력
12월	로봇솔루션 업체 '로보티즈'에 90억 원 투자해 지분 10.12% 취득
2018년 7월	산업용 로봇 제조기업 '로보스타'에 800억 원 투입해 경영권 인수
2019년 1월	'네이버랩스'와 로봇관련 연구개발 진행기로 CES서 합의

라 간에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김진오 광운대 로봇학부 교수는 “일본, 미국, 독일은 로봇에 대해 50년 전부터 발을 들이기 시작했다”며 “이들과 우리나라 간 격차는 약 30년이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모두 중요한 로봇에서 우리나라가 차이를 좁히기 위해선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광운대산학협력단이 발표한 '2017년 로봇산업 경쟁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품질 경쟁력 부문에서 일본과 유럽이 모든 분야에서 1, 2위를 차지했다. 제조용, 서비스 로봇을 제외한 기술 경쟁력 부문에선 미국이 1위를 차지했다.

설상가상으로 로봇 분야에서 후발주자로 꼽히는 중국은 로봇을 제조업의 10대 전략적 육성산업 중 하나로 꼽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 또한 “로봇 산업의 기술력을 향상해 세계 로봇 시장을 점령하자”고 강조했다.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 기업들은 해외기업 혹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과 협업에 나서고 있다. 특히 LG전자는 2017년 5월 웨어러블 로봇 스타트업 SG로보틱스에 30억 원을 투자해 기술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같은 해 12월에는 90억 원을 투자해 로보티즈의 지분 10.12%를 취득했다. 로보티즈는 로봇 관절 역할을 하는 동력구동장치 '엑추에이터'를 독자 개발한 기업이다.

LG전자의 투자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작년 7월에는 산업용 로봇제조 기업 로보스타 지분 30%에 해당하는 800억 원을 투입해 경영권을 인수했다. 올해 CES에선 네이버랩스와 공동으로 로봇 관련 연구개발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현대차는 최근 미국 인공지능 전문 스타트업 퍼셉티브 오토마타에 대해 전략투자를 단행, 로보틱스 분야에 활용하는 인강 행동 예측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협업에 나섰다. 한화정밀기계는 중견 로봇 기업 유진로봇과 모바일 협동로봇 개발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내년 세계 로봇시장 규모 203조 삼성, 美·이스라엘 업체 투자 LG, 국내 '로보티즈' 지분 인수 현대차, AI기업 '오토마타' 협업

이트' 콘셉트카를 선보였다. 로봇은 다리를 이용해 걸어다니다가, 다리를 접어 일반 자동차로 변신하기도 했다. CES에 참가하지 않는 기업도 로봇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작년 9월 중국 로봇 기업 하궁즈닝과 산업용 로봇 합자회사 설립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두산로보틱스는 작업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업무를 도와주는 로봇인 협동로봇을 양산한 지 1년 만에 중국 협동로봇 시장에 진출했다. 많은 기업이 로봇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시장 성장 가능성과 연관이 있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전 세계 로봇 시장 규모는 2016년 915억 달러(약 103조 원)에서 2020년 1800억 달러(약 203조 원)로 증가할 전망이다.

문제는 기술력이다. 전문가들은 로봇에 일찍이 관심을 가진 일본, 미국과 우리나라

랜섬웨어 정보센터 www.hauri.co.kr

알려지지 않은 최신 랜섬웨어



바이로봇 Anti-Ransomware

보안취약점을 통해 유입되는 랜섬웨어



바이로봇 APT Shield 2.0

이미 알려진 랜섬웨어 동작 시



바이로봇 7.0

당신의 소중한 파일을 노리는
랜섬웨어

하우리, 바이로봇으로 차단하세요!

수년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한 순간에 암호화 시켜버리는 랜섬웨어. 대한민국 대표백신, 바이로봇 솔루션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세요.

(주) 하우리 | 서울시 종로구 을지로 238 (여말린당) 6층 | 대표전화 02-3676-1100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Shinhan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더 큰 무대에서
뛰어넘어

2019 AFC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신한은행(베트남) 모델
박항서 감독

1년 전, 베트남 축구 사령탑을 맡게 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사에 새 역사를 썼듯이
1993년, 호찌민에 첫 발을 내딛은 신한은행도 베트남에서 외국계 은행 1위로 새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이제, 박항서 감독과 함께 신한은행은 더 넓은 무대에서 더 높은 꿈을 향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리딩뱅크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20개국 163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세계로 뻗어가는 신한은행>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날개 단 자금제폰 시장...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까

팬택 '스카이' 자금제 방식 부활... 네이버 유통 시장 진출
올해부터 이통3사 공통 출시 단말기 모두 자금제 판매 허용
"통신비 인하경쟁 유도"... 제조·통신사 "효과 없을 것" 냉랭

지난해 도입이 무산된 단말기 완전자금제 대신 부분 자금제 활성화에 대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네이버가 자금제 시장에 뛰어들었고, 과거 영광을 누렸던 '스카이' 폰이 자금제를 통해 부활했다. 여기에 정부의 지원자격까지 합세하면서 자금제폰 활성화가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15일부터 쇼핑중계 플랫폼(스마트스토어)에 '휴대폰' 항목을 신설한다. 자금제폰, 해외에서 출시된 폰, 중고폰 등 상품을 등록하면 '네이버 스토어'를 통해 팔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내 최대 IT 업체인 네이버가 자금제폰 유통시장에 뛰어들면서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자금제폰은 이마트, 하이마트 등 가전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약

정 없이 구입할 수 있어서다. 통신사와 상관없이 휴대전화를 구입한 뒤 원하는 통신사 서비스에 가입하는 식이다. 때문에 휴대전화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통신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일정 기간 가입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기존 단말기보다 저렴해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꼽혀왔다.

이날 국내 최초 슬라이드폰을 출시하면서 2000년대 초반 인기몰이를 했던 팬택 '스카이(SKY)'도 자금제폰을 통해 부활을 알렸다. 2016년 6월 신제품 출시 이후 3년 만이다.

작한텔레콤은 팬택과 포괄적 협력 계약을 통해 스카이 브랜드의 휴대폰과 IoT(사물인터넷) 디바이스를 출시한다. 작한텔레콤은 이번 협력을 통해 스카이 브랜드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를 비롯, 스카이스터 서비스 인수 및 기존 팬택 인력을 승계받는다.



작한텔레콤은 올 상반기 중 스카이 스마트폰 1종과 폴더폰 1종을 출시할 계획이다. 스카이 휴대폰의 유통은 최근 국내에서 확대되고 있는 단말기 자금제 방식으로 운영한다. 기존 작한텔레콤의 유통 채널이었던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스카이 브랜드 전용관이 개설될 예정이다. 통신 3사 및 알뜰폰 사업자에도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자금제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올해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공통으로 출시하는 모든 단말기를 자금제로도 판매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국내 제조사 단말기 기준 8종이던 판매 가능한 자금제폰은 올해 20종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통 3사가 출시하지 않는 자금제 전용 단말기도 확대된다. 제조사들은 당장 연내

이통 3사 모델과 다른 독자 모델을 자금제 단말기로 판매하거나 이통 3사 판매 모델과 색상, 스펙 등이 다른 단말기를 출시하기로 했다. 10만 원대의 스마트폰 자금제 단말기 출시도 추진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자금제폰이 활성화하면 수년간 고착화된 유통구조를 깨면서 마케팅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비용 절감을 통해 통신사들의 요금 인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의 기대와 달리 휴대폰을 만들고 유통하는 제조사와 통신사의 시각은 냉랭하다. 완전자금제가 도입되더라도 통신비가 내려갈 것이라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아직 없고, 오히려 고객들의 불편만 더 커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지난해 완전 자금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고, 부분 자금제가 활성화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독과점인 국내 단말기 제조, 통신 시장에서 가격인하 경쟁에 나설 가능성은 드물다"면서 "오히려 보조금이 사라져 소비자들은 비싼 돈을 주고 단말기를 구입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신동훈 "국내 첫 시스템 정수기로 시장 판도 바꿀 것"

〈교원 사장〉

교원웰스 '웰스 더원' 을 6만대 판매 목표... 매출 신장 기대
출수·필터 부문 분리 편의성 높여... 3일마다 자동살균 기능

교원웰스가 국내 최초 시스템 정수기 '웰스 더원' 을 출시, 업계 판도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신동훈(사진) 교원그룹 사장(웰스사업본부장)은 14일 서울 종로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시스템정수기 '웰스 더원(Wells TheOne)' 신제품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에서 전자레인지 등의 상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을 담당했던 신 사장은 지난해 1월 교원에 합류했다.

이날 1년여 만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타난 신 사장은 "올해 세상에 없는 획기적인 제품들을 선보일 것"이라며 "그 첫 번째 작품이 웰스 더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교원 웰스의 매출 목표를 지난해 1570억 원보다 30%가량 늘어난 2030억 원으로 제시했다. 특히 교원 웰스는 올해 전체 정수기 판매량의 40~50%를 웰스 더원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웰스 더원 판매 목표는 약 6만여 대다.

이날 신 사장이 발표한 웰스 더원은 물이 나오는 곳과 정수를 위한 필터 본체를 분리한 국내 최초의 '시스템 정수기'를 표방한다. 물이 나오는 출수 부분은 작은 물병 크기(지름 8.8cm)로, 외부에는 이 부분만 노출돼 깔끔한 디자인을 자랑한다. 여기에 정수를 위한 필터 본체는 싱크대·식탁 아래에 둘 수 있어 주방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편의성과 함께 공간 활용도를 크게 높였다. 냉·온수 기능은 기본으로 적용됐다.

자동도 편리성의 '깔판왕'이라 할 수 있다. '월 터치 디스플레이'를 적용, 단 한 번의 터치로 물의 온도와 양 등을 맞



국내 최초 시스템 정수기 '웰스 더원' 시연 모습. 사진제공 교원웰스

출 수 있다. 출수 부분은 180도 회전이 가능해 컵 크기와 용도, 공간 등에 맞게 회전해 사용 가능하다. 또, 인체감지센서를 통해 사람을 인지한 후 절전모드를

고고, 디스플레이가 켜지는 편리함도 더했다.

웰스 정수기만의 '이중냉각관'과 '9단계 필터시스템'도 손꼽힌다. 냉각탱크 대신 이중냉각관을 사용해 세균 걱정을 없앴고, 9단계 필터시스템은 8인치 대용량 필터로 수은·납 등 중금속 6종을 걸러낸다. 중금속과 세균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은 걸러주는 대신 미네랄 등 유익한 물질 함유량은 높였다.

이와 함께 투명한 '바이오 유로관'은 불순물이 끼지 않아 별도 유로관 교체 서비스를 필요 없게 해준다. 향균 세라믹 'H+코크'를 적용해 출수 전에 한 번 더 정수하고, '바른 살균시스템'으로 3일마다 자동으로 살균해주는 만능 정수기다.

신 사장은 "웰스사업부는 지난해 매트리스·흡수제 분야에 진출하는 등 변화를 꾀하며 전년보다 30% 정도의 매출 신장을 거뒀다"며 "올해 인공지능(AI)과 IoT(사물인터넷)에 기반을 둔 토털솔루션 제품을 새롭게 출시해 소비자에게 더 건강한 삶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자신했다. 이재훈 기자 yes@

'SW 고성장클럽 200' 과기부 대상기업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SW) 고성장클럽 200'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간이다.

이 사업은 2021년까지 고성장이 기대되는 우수 SW기업 200곳을 선정해 멘토링과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성장전략 멘토링, 기술개발 등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경쟁력 있는 창업기업 등 예비고성장기업 50개, 고성장기업 10개를 우선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1년간 최대 예비고성장기업 1억원, 고성장기업 3억원을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과 함께 마케팅, 제품 글로벌화 등 과제를 자율적으로 설계·이행할 수 있다.

신청요건과 지원내용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22일과 28일 각각 대전과 서울에서 진행한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한샘, 유아용 식탁 의자 출시

종합홈테리어나전문기업한샘이온라인 쇼핑몰 한샘몰에서 유아 식탁 의자 '아드망'을 출시하고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아드망은 생후 6개월부터 만 3세까지 식탁 의자, 놀이 의자, 낮잠 침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유아 식탁 의자다. 일반형과 스윙형, 부스터형 중 용도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일반형은 높이가 80cm부터 170cm까지 9단계로 조절할 수 있다. 등받이와 발 받침도 각도가 조절돼 식사, 놀이, 수면 등 다양한 활동에 쓸 수 있다. 스윙형은 일반형의 기능에 수동형 흔들요람침대 기능을 더했다. 부스터형은 2.8kg으로 휴대 가능해 활용도가 높다.

한샘은 출시를 기념해 최대 34%까지 가격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비트코인' 다시 400만원대 붐괴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 약세... 시장 전반 신뢰도 하락 영향
前저점 356만원이 지지선... 무너질 경우 300만원대 위협

가상화폐(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가격(1BTC)이 또다시 400만 원(14일 빗썸 기준)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15일 356만 원으로 연중 최저점을 기록한 후 반등했지만, 다시 하락세로 접어든 것이다. 업계에선 356만 원 지지선이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14일 빗썸에 따르면 1비트코인당 가격은 396만 원(오전 9시 기준)으로 거래돼 전일 대비 13만1000원(3.2%) 하락했다. 지난해 연저점인 356만 원 기록 후 470만 원까지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된

것이다.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약세로 돌아서자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다른 코인)들도 맥 없이 무너졌다.

리플은 356원으로 전일 대비 15원(4.04%) 하락했고, 이더리움은 13만400원으로 1만200원(7.25%) 하락했다. 이밖에 비트코인캐시 14만200원(7.21% 하락), 이오스 2525원(6.55% 하락)을 기록했다.

시장에선 전 저점인 356만 원에 주목하고 있다. 직전 저점이 중요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지지선이 깨지지 않

고 다시 상승한다면 이른바 '이중바닥(W자 패턴)'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356만 원 지지선 이하로 떨어지면 300만 원대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특히 뚜렷한 약재가 없는 시점에서의 하락이라 시장 전반적인 신뢰도가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화폐 데이터 제공 업체 알터나티브(Alternative)의 추산 '공포·탐욕 지수'는 전일(22)보다 1포인트 하락한 21을 기록했다. 이는 시장에 대한 공포 심리가 전 날보다 소폭 약화했음을 의미한다. '공포' 단계는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

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일각에선 이더리움 하드포크를 이용한 사기 증가와 최근 이더리움클래식 네트워크가 '51% 공격'에 위협받고 있는 소식 등을 약재로 꼽고 있다. '51% 공격'이란 채굴자 51% 이상이 네트워크를 장악해서 장부를 조작하는 것을 뜻한다.

한 전문 트레이더는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든 이후 꾸준한 하락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침체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매장 크기 줄이고, 메뉴 축소 군살 빼는 외식업계

스쿨푸드 딜리버리·놀부보쌈 익스프레스 등 선보여
창업 진입문턱 낮추고 임금 인상·외식소비 감소 대비

“식당이 작아졌어요.”

외식업계가 매장규모를 축소하고 메뉴까지 간소화하는 등 ‘생계형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와 외식소비 감소로 이같은 움직임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외식비용은 29만2689원으로 전년 대비 1만 1000원 줄었으며 외식횟수 역시 20.8회로 전년보다 1회 감소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달과 테이크아웃 중심으로 브랜드를 리뉴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예비창업자의 초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축소 버전 브랜드 론칭에 적극적이다. 이미 놀부보쌈, 스쿨푸드, 모스버거, 돈치킨 등이 배달과 테이크아웃 시장을 겨냥한 브랜드를 선보였다.

SF이노베이션은 대표 브랜드인 스쿨푸드를 축소한 ‘스쿨푸드 딜리버리’를 선보였다. 스쿨푸드 딜리버리는 배달 앱에서 주문 건수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배달 전문이기 때문에 별도의 홀 면적이 필요하지 않아 창업 자금 부담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SF이노베이션은 올해 창립 18주년을 맞은 올해 스쿨푸드 딜리버리를 가맹점 확대에 가장 크게 기여할 브랜드로 꼽고 가맹점 확대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놀부는 놀부보쌈을 재해석한 ‘놀부 족발보쌈 익스프레스’를 지난 2016년 첫 선을 보였다. 놀부족발보쌈 익스프레스는 최소 10평부터 창업이 가능하고 메뉴 역시 놀부보쌈의 스테디셀러 메뉴를 중심으로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놀부는 콤팩트한 점포를 선호하는 예비창업자들을 위해 삼겹살 브랜드 삼겹농, 분식전문점 공수간 등을 흡인숍 브랜드로 육성하고 있다. 삼겹살 배달 브랜드인 삼겹농과 공수간은 흡인숍 브랜드로 육성한 후 지난해에만 기존 가맹점의 추가출점이 46개로 늘어났다.

직영점 위주의 대형매장을 고집해 왔던 모스버거도 지난해부터 몸집을 줄이고 가맹사업에 도전장을 냈다. 테이크아웃 매장인 모스버거 익스프레스는 현금을 받지 않는 카드 전용 매



스쿨푸드 딜리버리 매장.

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잠실 새내점을 첫 매장으로 대형마트 내 흡인숍 등으로 매장수를 확대하고 있다. 메뉴는 모스버거에서 가장 인기 있는 버거 5종 △모스BBQ치즈버거 △모스치즈버거 △와규치즈버거 △새우카츠버거 △모스클래식치즈버거에 매월 새로운 맛의 버거 1종을 선보인다. 메뉴 간소화로 가맹점주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10~15평 규모로 창업 가능하며 2020년까지 100호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돈치킨도 딜리버리 전문 브랜드를 추가로 론칭했으며 원할머니보쌈으로 알려진 원앤원도 배달 삼겹살 전문점 ‘핑크돼지’를 운영 중이다.

외식업계는 매장 면적과 메뉴 축소는 물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축소 움직임도 거세다. 답밥 전문점 바베더퍼는 바(BAR) 형태의 인테리어에 키오스크를 통한 주문시스템을 갖추면서 1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장수 분식 프랜차이즈인 김가네도 점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키오스크 도입 매장을 확대하고 있다.

이상헌 창업경영연구소장은 “식당들이 몸집을 줄이는 이유는 내방 고객 축소와 객단가 감소, 최저임금 인상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불황으로 창업비용을 줄이려는 창업자들이 크게 증가한 것도 작은 식당이 늘어난 배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기존 외식업체들의 몸집을 줄이는 시도는 앞으로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현희 기자 yhh1209@

LF, 오비에 도전장... ‘백두산 맥주’ 신경전

인텔지, 수제맥주 ‘백두산’ 상표권 문제 2월 이후로 출시 연기
핸드앤몰트 ‘소원 페일 에일’ 이달 말 선포...업계 “유통망 싸움”

대기업 수제맥주 계열사인 ‘백두산’ 브랜드에 대한 신경전이 거세다.

LF 계열 주류 유통회사인 인텔지와 오비맥주 자회사 핸드앤몰트는 브랜드네임과 원재료를 두고 ‘백두산’ 원조 논쟁이 한창이다. 남북 화해무드 조성으로 대동강맥주, 금강산 관광 등 북한과 관련된 상품이 주목받으면서 이들은 수제맥주 시장에서 ‘백두산’ 이미지를 먼저 각인시키기 위해 관련 제품 출시에 나선 상황이다.

14일 주류 업계에 따르면 LF그룹이 인수한 주류유통업체 인텔지는 수제맥주 신제품 산(山) 시리즈를 이달 말 선보이고 있다. 인텔지는 산 시리즈의 일환으로 ‘백두산 맥주’를 이달 중 선보일 예정이었으나 브랜드 상표권 등록 등의 문제로 2월 이후로 출시를 연기한 상태다.

앞서 오비맥주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핸드앤몰트는 백두산 물로 만든 수제맥

주 ‘소원 페일 에일’을 이달 말부터 선보인다. 맥주의 주원료인 물로 ‘백두산 물’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소원 페일 에일이라는 브랜드명 역시 남북간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았다.

인텔지의 브루어리(맥주공장)는 강원도 고성, 핸드앤몰트는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해 있다. 공장은 각각 강원도와 경기도지만 이들의 주요 수원지는 공통적으로 백두산이다. 두 회사 모두 민족의 명산으로 불리는 백두산의 이미지를 차용하기 위해 백두산 물을 사용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제품을 먼저 출시한 핸드앤몰트가 현재까지 백두산 이미지 활용에 앞서 있다는 평가다. ‘최초’의 백두산 물을 사용한 맥주라는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 또 남과 북의 대표 수원지의 물을 더해 민족의 화합을 이끈다는 ‘스토리텔링’ 면에서도 핸드앤몰트의 접근이 신선했

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변수는 상표권이다. 인텔지는 특허청에 상표권을 출원한 상태다. 앞서 ‘금강산 골든 에일’과 ‘한라산 화이트’를 선보여온 인텔지는 ‘산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기 위해 백두산을 비롯해 △남산 △북한산 △설악산 등의 상표 출원을 마친 상태다. 다만 특정 지명 등 고유명사만으로 상표권 등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문베어 브루잉 백두산 IPA’라는 브랜드로 상표권을 출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백두산 맥주 논란에 대해 거대 글로벌 맥주기업인 AB인베브와 패션으로 시작해 사업다각화에 나선 토종 기업 LF의 대리전 양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맥주는 결국 유통망 싸움이다. AB인베브가 핸드앤몰트를 통해 소원페일에일을 먼저 선보인데다 동남아 등 해외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지만 LF의 인텔지가 상표권 등록에 성공한다면 미투상품인 일명 ‘짝퉁’ 브랜드에 굶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국내에서는 핸드앤몰트를 위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산지·생산정보 담긴 설날 과일 선물세트

이마트는 올해 설부터 산지, 생산자 등 과일의 고유 배경이 녹아있는 ‘스토리텔링’ 과일 선물세트를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대표 상품으로 39세 젊은 농부 이승호 씨가 재배한 ‘국산 의힘 청년농부 예산사과’ (4만9800원), 화성의 30년 경력 농민 신창수씨가 생산한 ‘프리미엄 신창수 배’ (7만9800원) 등을 선보인다.
사진제공 이마트

5개국 뷰티 인플루언서 손잡은 신라인터넷면세점

‘뷰티앤유 프로젝트’ 1700만 글로벌 고객 공략

신라인터넷면세점이 글로벌 마케팅 확대를 위해 5개국 ‘뷰티 인플루언서’와 손잡았다.

신라인터넷면세점은 중국,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총 5개국의 인플루언서 5명과 함께 ‘뷰티앤유(Beauty&U)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14일 밝혔다.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 마카오 국제공항, 일본 도쿄 시내, 태국 푸켓 시내 등 5곳에서 해외 오프라인 면세점을 운영하는 신라인터넷면세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글로벌 이미지를 강화하

고 해외 온라인면세점 시장 점유율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뷰티앤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5개 국가의 인플루언서들은 팔로워 수가 1700만 명 이상에 달할 정도로 파급력이 크다. 이들은 유튜브, 페이스북, 웨이보 등 글로벌 SNS 채널에 한국 최신 메이크업, 가성비 메이크업, 신라인터넷면세점 모델 레드벨벳 따라잡기 메이크업 등 주제에 맞는 메이크업을 시연하고 신라인터넷면세점의 이용방법과 혜택을 소개하는 영상을 릴레이로 공개했다.

신라인터넷면세점 관계자는 “신라인터넷면세

점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 4개 언어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번 활동을 통해 글로벌 면세점 이미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라인터넷면세점은 영국 글로벌 비영리단체 ‘월드 브랜딩 포럼’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018-2019 월드 브랜딩 어워드(World Branding Awards-WBA)’에서 국가별 최고의 브랜드로 선정됐다.

2014년부터 매년 발표되고 있는 ‘월드 브랜딩 어워드’는 글로벌, 지역, 개별 국가 등 3개 항목으로 나눠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하며 한국 면세점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신라인터넷면세점이 선정됐다.
박미선 기자 only@

깊은 맛과 향... ‘51.2도’ 타협 없는 싱글몰트

상품의속살 ‘맥캘란 클래식 2018’ 정통 스카치 위스키 자존심 지켜

저도주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프리미엄 싱글몰트 위스키로 잘 알려진 맥캘란은 알코올도수 51.2도의 고도주 ‘맥캘란 클래식 2018’을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최근 위스키 업계는 저도 트렌드를 겨냥해 도수를 낮춘 신제품을 잇따라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소주에서부터 위스키, 막걸리까지 주류 전반에 이미 저도 트렌드가 자리잡은 상황에서 2018년 2월 맥캘란은 나홀로 고도주 본연의 풍미를 앞세운 ‘맥캘란 클래식 2018’을 선보였다. 50도가 넘는 맥캘란 클래식 2018은 깊고 진한 풍미를 원하는 기본에 충실한 위스키 애호가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출시 한달 만에 완

판을 기록했다.

이에 맥캘란은 같은해 9월 맥캘란 클래식 2017의 후속작인 ‘맥캘란 클래식 2018’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맥캘란의 싱글몰트 위스키 마스터가 엄선한 스페인 헤레즈 지방의 울로로



소 세리를 숙성시킨 오크통 원액으로 만들어졌다. 40도에 해당하는 보통 위스키보다 무려 10도 가량 더 도수가 높은 51.2도를 자랑한다. 도수가 높은 만큼 맥캘란의 특유의 깊은 맛과 향은 더욱 진하다. 특히 신선한 오렌지와 레몬 등의 시트러스 계열 뒤로 느껴지는 은은한 견과 열매와 계피의 달콤한 향이 일품이다.

전대규 맥캘란 브랜드 엠버서더(홍보대사)는 “맥캘란 클래식 2018은 오렌지, 바닐라의 풍미를 그대로 담아 이상적인 싱글몰트 스카치

위스키의 맛을 표현한 제품으로, 저도주 위스키 트렌드 속에서도 40도가 넘어야 진정한 스카치 위스키라는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스카치 위스키협회(SWA)에서는 알코올 도수 40도 이상의 위스키만 정통 스카치 위스키로 인정하고 있다.

맥캘란 브랜드 마케팅팀 손영기 차장은 “클래식 2018은 고도의 싱글몰트이지만 맥캘란 특유의 달콤한 풍미가 강해 다른 저도 제품과 비교해도 부드럽게 마실 수 있다”며 “앞으로도 맥캘란 싱글몰트의 강렬한 풍미를 경험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고도 싱글몰트 제품군을 계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현재주가 > 목표가 12건... 암울한 증시 터널

전문가 투자의견 하향조정 많아
강원랜드·농심 주가 괴리율 커
'사자'에서 '보유' 한달새 5배 ↑



일자	종목명	증권사	투자의견	목표주가	14일 증가
1월 4일	강원랜드	메리츠증권	보유	30,000	32,300
1월 7일	농심	대신증권	중립	270,000	288,500
1월 7일	한세실업	하나금융투자	중립	19,000	20,300
1월 10일	기아차	한화투자증권	보유	32,000	33,800
1월 3일	LG디스플레이	BNK투자증권	보유	19,000	20,000
1월 10일	아모레G	DB금융투자	보유	66,000	68,900
1월 2일	위메이드	삼성증권	매수	36,000	37,300
1월 9일	OCI	KB증권	보유	92,000	94,600

목표주가가 현재가를 하회하는 보기 드문 현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의견이 하향 조정되면서 나타난 양상으로 풀이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증권사 리서치센터가 제시한 목표주가 현재 주가보다 낮은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총 12건으로 지난달(3건)과 비교하면 4배 늘어난 수치다.

통상 목표주가는 밸류에이션과 PBR(주가순자산비율) 등을 고려해 기업의 상승 여력을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가보다 높은 경우가 대다수다. 그러나 올초부터 지

속된 증시 불확실성과 실적 부진으로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목표주가가 현 주가를 하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날 강원랜드의 종가는 3만2300원이

다. 메리츠증권증권이 4일 제시한 12개월 목표주가(3만 원)와 비교하면 괴리율은 -8% 가까이 벌어졌다. 7일 대신증권의 농심 목표주가(27만 원)도 현재주가(28만 8500원)와 -6.85%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백영찬 KB증권 연구원 "투자의견이 하향 조정되면 목표주가 현재주가보다 낮아지기도 한다"며 "다만 앞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 이란 의미는 아니고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 주가를 재조정하는 것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의견이 '매수(BUY)'에서 '보유(HOLD)'로 하향 조정된 보고서가 한 달 사이 3건에서 15건으로 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괴리율 역시 평균 -3.9%에서 -4.6%로 벌어졌다.

증권사가 제시한 1분기 평균 코스피지수는 전년 대비 -15.16% 하락한 2098선이다. GDP(국내총생산)와 수출지표도 각각 지난해보다 -11%, -73.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코스피 성장률 추정치가 매우 가파른 속도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며 "증권가 보고서가 나오면 나올수록 강한 하향 조정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분기 영업이익은 -9.5% 하락해 본격적인 감익 시기에 돌입할 전망이다"라고 설명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저가매수 기회”... 반도체株 쓸어담는 외국인

반도체·IT 실적 턱어라운드 기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집중 매수
개인투자자는 반대로 내다팔아

종목	수량(백주)	금액(백만원)
삼성전자	110,252	441,967
SK하이닉스	29,971	206,548
한국전력	32,868	114,125
현대건설	10,997	62,951
바이로메드	2,455	62,102

반도체 업황 둔화에 따른 실적 쇼크로 투심(投心)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집중 매수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일부터 14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다. 이 기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주식 4419억 6700만 원, SK하이닉스 2065억 4800만 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같은 기간 삼성전자(2493억 원)와 SK하이닉스(2010억 원)를 집중 매도해, 순매도 상위 1·2위에 이름을 올렸다.

사실 시장에서는 반도체 시장 부진이 지

속될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투자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원식 신영증권 연구원은 "IT 세트 수요 감소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2분기까지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체의 실적 감익 추세는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선우 메리츠증권증권 연구원도 "DRAM 산업은 유례 없는 다운사이클로 진입했다"며 "올해 DRAM과 NAND 판가가 전년 대비 40%와 52%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DRAM 업황은 2분기 한

차례 더 레벨 다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외국인의 반도체 관련 주 매수와 관련된 전문가들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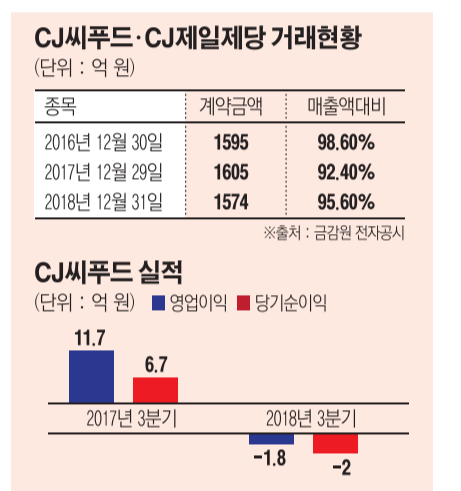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연초 이후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8000억 원 이상 순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4분기 실적 쇼크가 있었던 반도체, IT 업종에 매수세를 집중하고 있다"며 "이미 지나간 악재·불확실성보다는 현재의 주가와 밸류에이션 수준, 실적 턱어라운드 기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업황 둔화에 따른 실적 악화 우려가 지나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4분기 삼성전자의 실적쇼크는 수요 둔화와 재고조정이 겹치면서 증폭된 신규 주문의 감소로 인한 일종의 착시효과가 있었다"면서 "반대로 수요가 안정화되고, 재고에 대한 빌드업이 진행된다면, 증폭효과로 신규주문이 급증할 가능성도 열어줄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문선영 기자 moon@

CJ씨푸드 연매출 96% 연말에 발생 왜?

CJ제일제당과 상품 공급계약
매년 연례 행사처럼 이어져
3년간 내부거래 비중 85% 넘어



CJ제일제당이 연말이면 계열사 CJ씨푸드의 매출 올려주기에 분주하다. 매년 12월의 마지막날이 되면 전체 매출액 대비 90%에 달하는 상품 공급계약을 이어오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CJ씨푸드는 CJ제일제당과 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1574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의 96.6%에 달한다. 이번 계약으로 CJ씨푸드는 올해 해 장사를 거의 끝낸 셈이다.

두 회사는 연례 행사처럼 비슷한 계약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17년에는 12월 29일, 2016년에는 12월 30일 등 매해 마지막 평일에 각각 매출액 대비 92.4%, 98.6%에 달한다. 이번 계약으로 CJ씨푸드는 올해 해 장사를 거의 끝낸 셈이다. 덕분에 최근 3년간 CJ씨푸드의 내부거래 비중은 85%가 넘어 자립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처럼 모기업 없이는 자립이 어려운 CJ씨푸드는 대표이사 체제도 불안한 모습이다. 평균 임기가 3년으로 알려진 CJ씨푸드의 최근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6개월에서 1년에 불과했다. 2016년 3월 유병철·이해선 각자대표 체제에서 유병철·이상구 체제로 바뀐 CJ씨푸드는 1년 후인 2017년 3월, 이상구 대표가 강신호 대표로 변경됐다.

다시 1년 후엔 민경호·박정훈 체제로 모두 물갈이됐다. 주목할 점은 민경호 대표가 선임 6개월 만인 지난해 9월 또 다시 사임했다는 사실이다. 사임한 대표들은 모두

CJ제일제당으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 CJ씨푸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회사 내 실적이나 인사고과 평가에 의해 승진할 경우 좋은 쪽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CJ씨푸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었지만 지난해 3분기 적자 전환했다. 당기순이익의 경우 2016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다가 마찬가지로 3분기 적자 전환했다. 또 최근 3년간의 재무상태를 보면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줄곧 많았다. 이렇다 보니 유동비율 역시 100%가 채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3분기 CJ씨푸드의 유동비율은 66.66%에 그쳤다. 한편 CJ씨푸드는 3분기 기준 CJ제일제당이 지분 46.26%로 최대주주다. 이재현 CJ 회장이 CJ지주 지분 42.07%를 보유한 가운데 이 회장-CJ지주-CJ제일제당-CJ씨푸드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형식을 띠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 회장이 2017년 5월 복귀한 이후 CJ씨푸드에 대한 투자(유·무형자산)액은 기준 600억 원대에서 당해 750억 원까지 급증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주요 증권사 2018년 4분기 컨센서스 및 전분기 증감률 (IFRS 연결기준)

6개기업 합계	2017년 4분기(억 원)			2018년 3분기(억 원)			2018년 4분기 추정치(억 원)			전분기(%)			전년동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6개기업 합계	15,854	6,559	4,875	17,317	7,406	5,544	16,668	5,746	4,171	-3.7	-22.4	-24.8	5.1	-12.4	-14.4
NH투자증권	2,451	732	675	3,140	1,463	1,047	2,876	916	530	-8.4	-37.4	-49.4	17.3	25.2	-21.5
메리츠증권	2,086	1,064	865	2,676	1,412	1,073	2,360	1,189	1,006	-11.8	-15.7	-6.2	13.1	11.8	16.3
한국금융투자	2,764	1,478	994	3,701	1,826	1,533	3,784	1,383	1,000	2.2	-24.3	-34.8	36.9	-6.4	0.6
삼성증권	2,410	819	611	2,522	923	642	2,363	731	495	-6.3	-20.8	-22.9	-1.9	-10.7	-19.0
미래에셋대우	4,303	1,407	969	3,694	988	765	3,814	882	687	3.2	-10.7	-10.2	-11.4	-37.3	-29.1
키움증권	1,839	1,060	762	1,584	795	485	1,472	646	454	-7.0	-18.7	-6.4	-19.9	-39.0	-40.5

* 컨센서스는 추정기관수 3곳이상 * 금융업 매출액: 은행(이자수익), 보험(보험료수익), 증권(순영업수익)

증시 변동성 확대에 증권사 4분기 실적 '먹구름'

NH투자증권·삼성증권 등 6개사
4분기 순익 전년 대비 14% 감소 전망
투자은행 수익호조 긍정적 영향
한국금융투자·메리츠증권은 늘어

증권사들이 일평균 거래대금 감소와 증시 변동성 확대에 지난해 4분기에도 부진한 실적을 거둘 전망이다. 올해도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지난해 4분기를 저점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한국금융투자,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키움증권 등 6개 증권사의 지난해 4분기 순이익 추정치 평균은 417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4% 감소할 전망이다. 전분기와 비교해서도 24.8% 줄어든 수치다. 매출액 합계는 전년 동기 대비 5.1% 상

승한 1조6668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4% 감소한 574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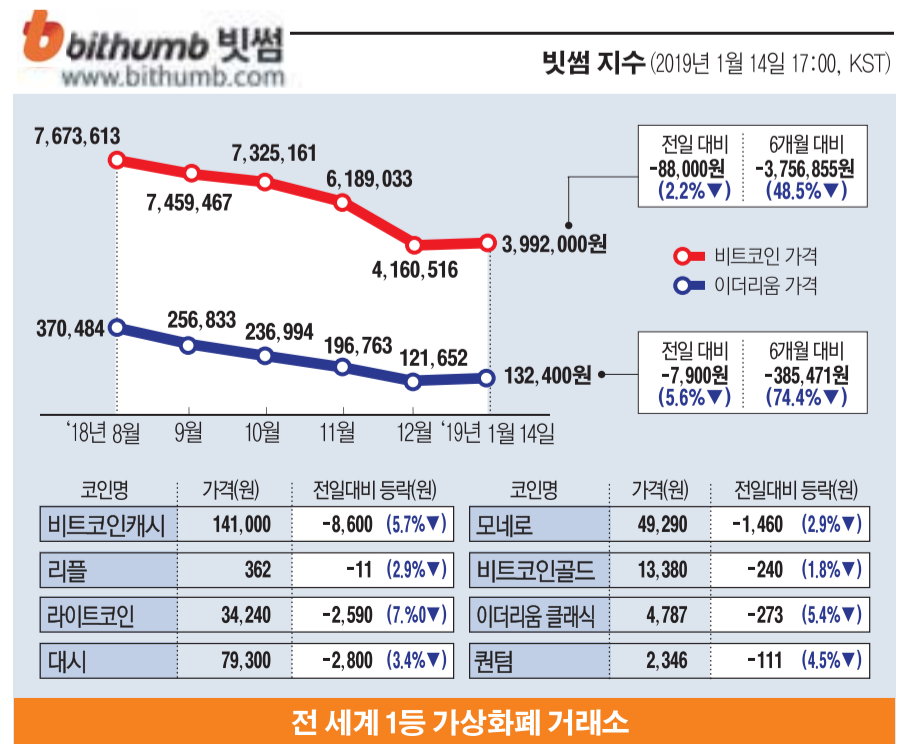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증가한 증권사는 한국금융투자와 메리츠증권뿐이다. 두 회사는 투자은행(IB) 수익호조가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국금융투자의 순이익 추정치는 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 늘어날 전망이다. 메리츠증권은 100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3%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증권사들의 실적 감소폭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키움증권의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0.5% 감소한 45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대우도 전년 동기 대비 29.1% 줄어든 687억 원을 거둘 전망이다. 이 밖에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5%, 19.0% 감소한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실적 하락세는 미·중 무역분쟁 및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증시 약세로 일평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급감하면서 수탁수수료 수익이 감소한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일평균 거래대금은 △1분기 13조7516억 원 △2분기 13조9110억 원을 기록하는 등 증시 반등에 힘입어 10조 원을 웃돌았다. 하지만 3분기 9조4986억 원에서 4분기에는 8조8000억 원까지 하락했다. KRX증권업 지수도 14일 기준 595.82로 1년 전(808.13)보다 26.27% 내렸다.

다만 4분기를 저점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신동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국내외 증시 불확실성은 올해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주요 지수들의 변동성이 차츰 완화되면서 지난해 4분기를 최악으로 분기 실적은 차츰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VT화장품〉 ‘방탄소년단 화장품’ 해외 공략 올해 AI 큐레이션 플랫폼 개발

기업 주식 담당자
주담과 Q&A

포티스

포티스의 주력사업은 전자상거래업으로, 기업 패션 브랜드의 온라인 쇼핑몰 판매 등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판권 확대 및 정품 인증 서비스에 집중하며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시장 경쟁력은

“우선 경쟁력 높은 아이템을 확보해 매출뿐 아니라 이익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자체 플랫폼 제작이 경쟁력이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아닌, 카테고리 킬러에 특화된 의류·화장품 분야에 있어 인공지능(AI)이 적용된 큐레이션 플랫폼을 준비 중이다. 현재 국책과제로 개발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쯤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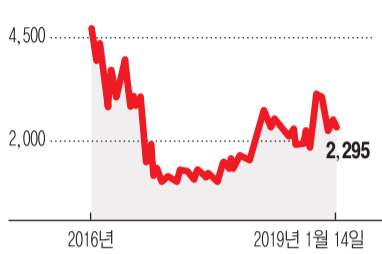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노력은 경쟁력 높은 아이템과 강력한 유통망으로 귀결된다. VT 화장품을 확보 및 유통하며 국내외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레셀 흡수평을 통해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 화장품으로 불리는 VT코스메틱의 VT 화장품은 이미 4분기부터 실적이 나오고 있으며 올해 포티스의 주요 매출로 자리잡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최근 골드맥스그룹과 협약을 맺게 된 계기와 이를 통한 기대감은

“전세계적으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와중에 이를 약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위조품

포티스 주가 추이

(단위 : 원)



‘VT 화장품’ 동남아 판권 확대 골드맥스와 정품라벨 공급계약

과 가품 등이 생겨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가품의 기술이 육안으로는 판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화장품과 패션 등을 유통하는 전문기업으로서 이러한 불법적인 일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매출과 이익에 차질이 없길 원한다. 이러한 이유로 정품 인증 라벨 전문업체 골드맥스그룹과 전략적 업무 협약을 맺고 당사가 유통하는 상품에 라벨을 부착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사업계획은

“더욱 많은 브랜드들을 확보해 이커머스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온라인 전용 여성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 ‘FLOPOP’은 중국 VIP닷컴을 통해 중국시장에서 콘셉트에 대한 이해를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VT 화장品的 경우 다만,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보다 많은 지역의 판권을 확보하고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VT 클라버를 통한 이벤트성 에디션 유통에 집중할 예정이다.”

고대영 기자 kodae0@

“내년 이종 장기 생산시설 완공 목표”

CEO 인터뷰

박철세 옵티팜 대표



“내년 이종 장기 제품 생산시설 완공이 목표다. 연간 500두 이상의 의료용 메디피그 생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내 최고의 메디피그 생산시설로 자리 잡겠다.”

박철세 옵티팜 대표는 이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메디피그란 의료용 돼지로, 동물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 간 장기이식에 활용된다.

박 대표는 “메디피그는 동물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할 때 발생하는 면역 거부 반응, 인수공통 전염병 등의 문제를 형질전환 기술, 무균상태의 청정화 기술로 해결한 최적의 장기 공급원이 될 전망”이라며 “지난 10년간 장기공급에 적합한 메디피그 개발에 집중한 결과”라고 말했다.

현재 옵티팜은 면역 거부 반응을 억제한 6종의 형질전환 돼지를 100두 이상 보유한 유일한 업체로 꼽힌다. 삼성서울병원,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이 공동으로 개발 중

연간 500두 이상 의료용 돼지 생산 피부·각막·체도 시장 진출 계획도

인 바이오 인공간에 돼지 간세포를 공급하기도 한다.

피부, 각막, 체도 시장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 이종피부(Opti-Derm)는 한강성심병원과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2021년 임상시험을 마친 후 2022년 출시할 계획이다. 이종각막(Opti-Cornea)은 비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임상 종료 후 2023년 시장 진입을 목표로

두고 있다. 난치성 당뇨 치료제로 기대감이 높은 이종체도(Opti-islet) 제품은 2023년 임상 종료 후 2024년 출시를 예상하고 있다.

주요 매출 사업부인 동물질병진단, 동물약품, 박테리오파지 등 동물 관련 사업도 순항하고 있다.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동물질병 진단사업부의 평가센터는 최첨단 기자재를 확보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병성감정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박테리오파지 사업은 다수 특허를 기반으로 국내에 이어 해외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 박테리오파지는 항생제를 대체하는 천연항미생물제를 의미한다.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한 신규 사료첨가제를 개발해 태국, 필리핀 등지에서 품목허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

박철세 대표는 “해외사업을 준비 중인 동물질병진단, 박테리오파지 등을 통해 매출을 극대화할 계획”이라며 “첨단재생의료법 통과와 함께 임상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이종장기 연구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희 기자 ljh@

현대바이오 “무고통 취장암 치료제 연내 임상”

2분기 내 임상시험계획서 제출

현대바이오사이언스(이하 현대바이오)가 이르면 1분기 무고통 취장암 치료제 ‘CP-727’의 1상·2상 임상시험계획서(IND)를 제출할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14일 “현재 비임상 분석 전문기관과 임상시험수탁업체(CRO)와 계약을 통해 임상시험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임상시험계획서는 이르면 1분기, 늦어도 2분기 식품의약품안전처(KFDA) 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수탁업체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보완하고 있는 단계”라며 “올해 임상 시험 진입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현재 잠정적인 계획은 ‘CP-727’의 국내 임상과 해외 임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다. 다만 이번 임상은 국내 취장암 환자 부족으로 해외 임상만 진행할 수도 있으며, 임상 수탁 기관과 최종안을 협의 중이다.

‘CP-727’의 비임상 및 임상 수탁기관은 각각 비임상 분석 전문기관 디앤씨알오와 임상 컨설팅·임상 전문 기관인 디앤씨알오와 두 기관은 동물실험부터 신약 허가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협력하기로 했다.

회사 내부에선 ‘CP-727’의 허가 후

현대바이오 주가 추이

(단위 : 원)



장암 치료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것으로 보고 있다. ‘CP-727’는 항암제를 암세포까지 전달하는 약물전달시스템 물질을 결합한 신약이다. 나노 단위 물질과 항암제가 결합하면, 암세포를 찾아가 때까지 분산되지 않는다. 치료제가 다른 신체 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암세포를 치료하는 만큼 부작용에 따른 고통이 준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현대바이오 측은 ‘CP-727’의 설계를 ‘무고통’의 영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고통’ 항암신약은 암 환자에게 최대 무독성 한도 내 용량의 약으로 고통 없이 암을 치료하는 것을 뜻한다.

현대바이오는 모회사인 씨앤피의 약물전달시스템(DDS) 물질 기술을 바탕으로 필요 부위만 작용하는 ‘CP-727’를 무고통 항암제로 평가하고 있다.

고종민 기자 kjm@

모두를 위한 SK증권 로보어드바이저

SHAKE

SHAKE는 고도화된 알고리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맞춤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입니다. (by 쉐이크백)

고객센터센터
1588-8245

- * 9시~18시 (주말/공휴일 제외) 24시간 상담 가능 (주말/공휴일 제외)
- * 9시~18시 (주말/공휴일 제외) 24시간 상담 가능 (주말/공휴일 제외)
- * 9시~18시 (주말/공휴일 제외) 24시간 상담 가능 (주말/공휴일 제외)
- * 9시~18시 (주말/공휴일 제외) 24시간 상담 가능 (주말/공휴일 제외)
- * 9시~18시 (주말/공휴일 제외) 24시간 상담 가능 (주말/공휴일 제외)
- * 9시~18시 (주말/공휴일 제외) 24시간 상담 가능 (주말/공휴일 제외)

‘반포3주구’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 각축전 예고

시공사 재선정에 삼성물산·현대건설 등 8개사 의향서 제출
롯데·대우건설, 하이엔드 브랜드 론칭 앞두고 시기 ‘저울질’

‘반포주공1단지 3주구’가 건설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대형사들의 아파트 브랜드 리뉴얼 작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올해 하이엔드 브랜드 론칭을 준비 중이다. 이 같은 계획은 10일 ‘반포3주구’ 간담회 현장에서 롯데건설 관계자가 언급했다. 하

석주 롯데건설 대표 역시 이달 초 건설업계 행사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를 꺼낼 적절한 시기를 찾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롯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계획은 2년째 추진되고 있다. 반포3주구 시공사 재선정에 대형 건설사들이 도전장을 내민 만큼 이번엔 브랜드 론칭 일정을 미루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특허청의 상표

검색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사이트 ‘마크인포’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작년 말에 ‘인피니엘(INFINIEL)’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포3주구 수주전에 뛰어든 대우건설도 새로운 브랜드 론칭을 계획 중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 선보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대우건설은 현재 아파트 브랜드 ‘푸르지오’ 이외에 고급브랜드 ‘푸르지오 써밋’을 사용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브랜드 변경은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품질, 서비스 등 여러 방면을 고객 만족도를 위해 새롭게 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아직 검토할 사안이 많아 론칭 시기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근 건설사들은 프리미엄 브랜드를 내세워 주택사업 이미지 제고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건설 ‘디에이치’, 대림산업 ‘아크로’ 등이 꼽힌다.

반포3주구는 지난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이달 초 조합이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 취소 안건을 가결시켰다. 이후 HDC현대산업개발은 법

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인 반면, 조합 측은 새로운 시공사 선정 작업에 돌입했다.

이에 대형건설사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건설, 대우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8개사가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시공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했고, HDC현대산업개발의 법적 대응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서울시 “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공급”

신혼부부에 최대 6000만 원까지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 전월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6000만 원)를 서울시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올해 2000가구 공급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인터넷 또는 방문 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종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대비 70%에서 100%로, 신혼부부는 100%에서 120%로 완화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 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 원 이하 주택이다.

김진희 기자 jh6945@

SK건설, 재무구조 ‘빨간불’

이자보상배율 3.26+0.23 뚝
SK건설 측 “미회수 채권 탕”

올해 건설업계 화두로 ‘재무구조 개선’이 떠오르고 있다. 녹록지 않은 해외 수주 환경과 국내 주택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흐름이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중 7개사가 전년 동기보다 이자보상배율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보상배율이란 한 기업에서 같은 기간 발생한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평가할 때 이용하는 수치다. 수치가 1 미만인 기업은 영업을 통해 버는 돈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부실기업’을 뜻한다. 통상 1.5 이상은 돼야 비교적 이자를 갚는 데 문제 없는 기업으로 통한다.

시평 상위 10개 건설사 중 지난해 인적분할한 HDC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한 9개사의 평균 이자보상배율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6.39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5.0)보다 1.39p 개선된 실적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할 경우 10대 건설사 평균은 6.7이다.

상위 10개사가 대체로 재무구조를 개선한 가운데서도 SK건설과 현대건설은 전년 동기보다 저조한 이자보상배율을 기록했다.

단, 현대건설의 경우 이자비용이 215억 원으로 전년 동기(207억 원)보다 8억 원 늘어난 데 비해 이자수익은 303

10대 건설사 이자보상배율 현황 (단위: 백만 원)

순위	건설사	2018년 3분기	전년 동기
1	삼성물산	6.78	4.81
2	현대건설	11.09	13.58
3	대림산업	7.18	6.87
4	대우건설	2.29	1.63
5	GS건설	6.72	1.43
6	현대엔지니어링	66.56	48.94
7	포스코건설	5.07	2.21
8	롯데건설	11.31	8.21
9	SK건설	0.23	3.26
10	HDC현대산업개발	21.96	-

※HDC현대산업개발, 지난해 인적분할 실시로 2017년 실적 비교 제외

상위 9개사 평균 이자보상배율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억 원으로 같은 기간 55억 원 증가해 실제 이자 부담을 상쇄하게 됐다. 이자보상배율도 11.09로 전년 동기(13.58)보다 다소 줄었지만 평균(6.7)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재무 안정성이 우려되는 건설사는 SK건설이다. SK건설은 지난해 3분기 말 영업이익이 26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4% 감소한 실적을 기록했다. 때문에 이자비용을 전년 동기 147억 원에서 112억 원으로 줄이는 노력을 했음에도 0.23이라는 저조한 이자보상배율을 기록하게 됐다. 전년 동기(3.26)보다 3.03p나 감소한 셈이다.

SK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의 급감은 ‘아산 배방 펜타포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장기 미회수 채권이 대손상각비로 잡힌 데 따른 것으로 안정적인 재무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前야구선수 최희섭 소유 아파트 경매로

메이저리거 출신으로 현재 야구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는 최희섭 씨 소유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졌다.

14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에서 24일 광주광역시 광전동 소재 ‘광전e편한세상 113동 1103호(113.7㎡)’에 대한 1회 차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최 씨와 전 아내가 공동 소유한 것으로 지난해 9월 경매개시결정(사건번호 2018-13767)이 내려졌다.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전 임차인이다. 전세기간이 만료됐으나 임차보증금 2억 원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

감정가는 4억7000만 원이며 24일 유찰

되면 3월 5일 최저가가 30% 감소한 3억 2900만 원에서 2차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2년 2월 최 씨와 전 내내는 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그러나 매수 후 채권, 채무 관련 등기는 모두 전 아내 지분에만 설정된 상태. 현재 전 아내의 지분에는 근저당, 질권, 가압류, 압류 등 다수의 권리 관계가 얽혀 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은 지난해 4월 임차권을 등기하고 이사를 한 상태여서 명도에 대한 부담은 없다”며 “다만 임차인의 이사 이후 관리비가 미납된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의 동일 평형대 시세는 현재 5억 원대 중반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개시



꼼꼼히 체크하면 '13월의 보너스' 욕심 부리면 가산세!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 시작됐다.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기면 말 그대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지만, 자칫 욕심을 부리다 과다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오히려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일례로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의 공제 대상이 아니며 자녀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국세청 도움을 받아 연말정산 주요 비과세·감면 오류, 과다 공제 유형을

직계존비속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집에서 세 들어 살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빌린 원리금 상환액은 300만원 한도로 40% 공제해준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니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인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자녀가 쓴 신용카드액 부부 중복공제 못받아 배우자 주택자금 이자상환액도 공제대상 제외 과다 공제 받으면 줄어든 세금 다시 토해내야

간추려 소개해 본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때 소득·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해 과다 공제를 받게 되면 줄어든 세금을 다시 내야 하고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가산세도 부과된다.

청년·장애인·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5년간 소득세의 70~90%를 연 150만 원 한도에서 감면해준다. 이 경우 병·의원,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등은 대상 업종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회장·사장 등 고위 임원이나 최대주주 등의 배우자

이 밖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도 없다.

부모님 의료비의 경우 형제·자매가 나눠 세액공제 받는 것도 안 된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 공제가 가능하지만,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법원 “추가 공사대금 뒤늦게 일괄청구 안된다”

“차수별 계약서 조정 신청해야”

국가와 공사 장기 계약을 맺었을 때 공사기간이 연장됐더라도 공사대금(간접비)을 뒤늦게 일괄 청구하면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한화건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연손해금 발생 기간을 제외하면 1심과 2심의 판단이 거의 같았다.

이번 분쟁은 일명 ‘황금박쥐사업’으로

불리는 2000억 원 규모의 국군정보사령부 이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했다. 한화건설은 2010년 서초동에 있던 국군정보사령부를 안양시 만안구로 이전하는 장기계약공사 도급 계약을 맺었다. 장기계약공이란 계약 이행에 장기간 소요되지만 단년도 예산으로 체결하는 공사 계약을 말한다.

최초 계약(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 기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연장된 총공사 기간에 추가 지출한 간접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한화건설 측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총괄계약의 총공사 기간이 연

장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할 수는 없다”며 “장기계속계약에서 공사기간에 따른 간접비 청구는 차수별 계약을 통해 공사대금의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음 차수 계약대금의 증액을 신청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화건설은 간접비와 가설비(임시 건물 설치비) 등을 포함해 국가에 88억여 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간접비 조정 신청 절차를 따르지 않은 일부 계약에 대한 청구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36억여 원만 인정받게 됐다.

윤한슬 기자 charmy@



미세먼지 극심 공회전도 단속

극심한 미세먼지로 서울형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4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관계자들이 공회전 및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시스

“추운 건 싫어” 겨울여행 동남아 선호

스카이스캐너 ‘2년간 여행’ 분석 태국 방콕, 日 오사카 이어 2위에 세부·하노이·홍콩 등도 많이 검색

한국인의 월동 준비에 ‘동남아 여행’이 추가됐다. 매년 최저기온을 기록하면서 창문에 뽀뽀이를 붙이고 패딩을 사는 등의 방법으로 이겨냈던 이들이 겨울을 버티기보다 여름으로 탈출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스카이스캐너는 최근 2년간 한국인 여행객이 검색한 항공권을 바탕으로 겨울철

많은 검색한 상위 15개 도시를 분석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한국인은 겨울철, 계절을 오롯이 느끼는 것이 아닌 매서운 추위를 벗어날 수 있는 여름 도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가장 많이 검색한 여행지 가운데 따뜻한 도시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 51.1%에서 올해 54.8%로 상승했다.

태국 방콕은 겨울철 가장 많이 찾은 도시 상위 15곳 중 일본 오사카의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태국 방콕은 12월부터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면서 비교적 서늘한

날씨를 보이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돌아다니기에 최적의 날씨다. 선선한 날씨와 비교적싼 물가 때문에 마사지나 쇼핑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또, 합리적인 가격에 고급 호텔에 머물 수 있다는 장점 등이 겨울철 피난 여행지로 손꼽히는 이유로 분석된다.

다른 동남아 도시들의 검색량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필리핀 세부(21%)의 검색량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일본 삿포로(19%), 베트남 하노이(13%), 홍콩(10%), 베트남 다낭(2%)이 뒤를 이었다.

반면, 일본 오사카(-30%), 대만 타이베이(-13%), 일본 오키나와-후쿠오카-싱가포르(-12%)는 하향세를 보였다.

김소희 기자 ksh@

Advertisement for BRAVO My Life TV. Features the text '재미 공감 행복' and 'BRAVO My Life 정기구독 하세요! 삶이 달라집니다!'.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Also mentions '브라보 짬뽕 TV' and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구독 문의 (02) 799-2680

배터리 부족해도 괜찮아 '충전 차선' 달리는 미래차



김준형의
오토인사이드

10년 후 자율주행 출근길

11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막을 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19'는 우리에게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나아가 미래 기술에 대한 가능성도 내비쳤다. 불확실성이 가득했던, 그래서 지향점을 알 수 없었던 미래가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온 셈이다. 그래서 한 번 가보기로 했다. 2019년 CES에 등장한 신 기술을 들고 2029년으로.

◇출근 준비하며 전기차 자동충전 지시 = 2029년 1월 어느 날 아침. 여전히 바깥 날씨는 차갑다. 요즘 시대는 늦잠을 자거나 지각할 일이 별로 없다. 방 한가운데 홀로그램으로 등장한 비서가 알람을 대신한다. 낭랑한 목소리로 오늘 일정을 읊어주고 날씨와 주요 뉴스까지 알려준다. 기상 때 편안한 음악을 골라서 들려주기도 한다. 잠에서 깨지 않을 수 없는 시대다.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인공지능 비서에 물었다. "전기차 충전 상태 체크해줘" 잠시 뒤 "충전상태 62%"라는 답변이 나온다. 삼성전자가 개발한 '갤럭시 홈' 서비스인데 집안에서 자동차를 컨트롤할 수 있고, 현재 상태 등을 알려준다.

오늘 일정을 보니 전기차 충전 상태가 아슬아슬하다. 오전에 충남 세종시에 기자 간담회를 다녀와야 한다. 세종시까지 왕복할 만큼 전기차 배터리 기술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모른다. 동료 여럿을 태우고 함께 이동해야 한다. 경로가 늘어났고 주행 상황도 미리 가능하기 어렵다.

혹시 몰라 AI비서에 "자동 충전"을 주문한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일반 주차공간에 머물러 있던, 나의 똥똥한 전기차는 스스로 전천히 이동해 지하 주차장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공간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곧 알아서 충전한다.

충전을 100% 마치면 다른 전기차를 위해 공간도 비워준다. 2018년에 현대기아차가 개발한 기술인데 10년이 지난 요즘은 일반화됐다. 참 신기하고 기특하다.

2029년이 되니 전기차 대중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국내 보유 대수도 800만 대에 육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연기관 자동차가 절반 이상이다. 주차장의 절반은 아직 전기차 충전기가 없는 일반 주차장이라는 의미다.

◇도로 바닥에 깔린 전기차 충전기로 주행 중 무선충전 = 전기차 대중화가 시작됐던 2020년대 초. 가장 큰 문제는 겨울철



BMW가 CES 2019를 통해 선보인 디지털 콕핏. 전면 유리를 통해 다중 화상통화가 가능하다.

사진제공 BMW그룹AG

AI 비서에 "배터리 체크해줘" 전기차 알아서 충전 후 원위치 집에서 못했으면 달리며 완충

자율주행 중 앞유리는 스크린 영상통화·증강현실 내비 투영 뒷좌석 롤러블 TV로 영화감상

차량 난방이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과 달리 냉방이나 난방이 필요하면 모두 전기 배터리를 쓴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데 전기를 타면서 히터를 켜면 배터리 소모가 급격하게 빨라진다. 자연스레 충전 거리가 줄어들어간다. 결국 해결 방안은 배터리 성능을 끌어올리는 게 유일하다. 2029년이 됐지만 여전히 전기차 배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산더미처럼 쌓였다.

짐을 챙기면서 '삼성 갤럭시 홈'에게 명령을 내린다. "차에 히터 좀 미리 켜줘! 날이 차갑네."

◇차 앞 유리 통해 여러 명과 화상통화

= '카풀'을 위해 동료들을 한 명씩 태우러 이동하고 있다. 자율주행 모드로 전환하고 영상통화를 시도하자 차 앞 유리에 여러 명의 얼굴이 투영된다. 예전 같았으면 단체 메시지 방에 출발 사실을 알렸거나 하나하나 전화를 돌렸을 텐데. 참 좋아진 세상이다.

일행을 모두 태우고 세종시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라섰다. 편도 6차선의 오른쪽 한편에 전기차들이 줄지어 달리는 중이다. 이들은 뺑 뚱된 고속도로에서 굳이 하위 차선을 고집하고 있다. 미처 집에서 충전을 100% 채우지 못한 전기차들이다.

이들은 하위 차선에 마련된 '충전 차로'를 달리고 있는데 도로 아래에 깔린 충전기를 통해 무선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다. 충전이 부족한 전기차에 유용한 기술이지만 요즘 불만이 많다. 달리면서 충전하는 탓에 "충전 속도가 느려 터졌다"는 불만이 많다. 정부가 이런 것은 좀 감안해줬으면 좋겠는데..

◇차 천장에서 롤러블TV 화면 스크=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본격적인 고속도로 자율주행이 시작된다. 요즘 자율주행은 레벨4 수준이다. 애초에 핸들(스티어링 휠)조차 달리지 않은, 레벨5 수준의 자율차도

요즘 등장했다. 그런데 아직 가격이 비싸다. 당분간 레벨4에 익숙해지면서 나 스스로를 달릴 참이다. 몇 년후 레벨5 자율차도 일반화되겠다.

자율주행이 시작되자 앞유리에 증강현실(AR) 화면이 뜬다. 전방 도로 상황은 물론 현재 속도와 내비게이션 등이 두둥실 떠 있다. 2019년 CES에 현대기아차가 공개한 기술이다. 커요던 시절을 더듬어 보니 예전에는 이런 화면을 보려면 3D 안경을 썼어야 했다. 그 순간, 뒷자리 동료들이 무료함에 하품을 뽐어댄다. 차 안에 다양한 기술이 담겼는데 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음성 명령 하나로 차 천장에서 스크린 화면이 내려온다. 돌돌 말려있던 TV모니터가 1열과 2열 사이로 내려오며 커다란 화면으로 변했다. 2019년에 LG전자가 처음 선보였는데 당시에는 '롤러블TV'라고 불렀다고 한다. 애초 가정용 TV에서 시작한 롤러블TV는 이제 자동차 안까지 스며들었다.

2029년. 자동차를 중심으로 변화한 우리 시대는 인간이 신(神)의 영역에 도전하는 '호모데우스' 시대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는 듯하다. 김준형 기자 junior@



현대기아차가 선보인 자동 발레파킹 기능. 차에서 내려 스마트폰으로 설정하면 차가 주차장 빈공간을 찾아들어간다. 물론 다시 불러올 수도 있다. 사진제공 현대차그룹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BMW R 1200 GS. 사진제공 BMW

자율주행 오토바이, 라이딩의 종말일까

BMW, CES서 시제품 공개 "운전자 없애려는 것이 아닌 안전 기능 향상 위해 개발 상용화 계획은 없다"

BMW그룹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8일(현지시간) CES 2019 개막과 함께 미래 개인 이동성에 초점을 맞춘 인텔리전트 커넥티드 기술을 제시했다. 야외 행

사에서 BMW 모터라드의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며 주목받은 것. 라이더 없이 스스로 자율주행하는 모터사이클이다.

자율주행 기술을 담은 모델은 BMW R 1200 GS(사진)다, 스스로 시동을 거는 것까지는 하나도 낯설지 않다. 그러나 곧 모터사이클이 출발하면서 차체를 지탱하고 있던 스탠드는 천천히 접힌다. 이내 스스로 가속하며, 코너를 돌아 감속하며 멈춘다. 멈추기 직전에는 다시 차체를 지탱하기 위한 스탠드가 천천히 펼쳐지

고 모터사이클이 멈춘다.

자율주행하는 모터사이클은 가장 이상적인 주행 라인을 그리면서 완벽한 코너링을 만들어낸다. 나아가 적절한 브레이크 포인트를 골라내기도 한다.

250kg에 달하는 무게를 지녔음에도 BMW 자율주행 모터사이클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차체 중심에 1초에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 좌우 무게중심 이동을 감지하는 자이로 센서를 바탕으로 넘어지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기능을 완성했다.

자율주행 모터사이클 기술은 상황을 미리 감지하고 주행 상황에 따라 운전자에게 알려주거나 경고할 수 있다. 긴박한 상황에서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 자율주

행 기능을 중단할 수도 있다.

BMW 모터라드는 라이더, 즉 모터사이클 운전자를 없애려는 것이 아닌 "미래 모델에서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라이더와 자율주행 모터사이클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보다 안전한 모터사이클을 만드는 데 자양분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모터사이클 자율주행은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 달리는 재미를 추구하는 라이더들이 아무리 편하다한들 거금을 들여 자율주행 모터사이클을 고를 리 없다. BMW 역시 자율주행 모터사이클을 판매하거나 생산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junior@

〈투자개발형〉

“해외 우량 사업 수주 지원, PPP 사업 역량 확대”



초대석

허경구 KIND 대표

“우리의 설립 목표는 해외에서 우량한 사업을 발굴하고 수주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본격적인 성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해 설립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의 초대 사장인 허경구 사장은 웃음을 띤 얼굴이면서도 분명한 어조로 공사의 목표를 제시했다.

KIND는 지난해 6월 출범한 국토교통부 산하 공사로 사업 발굴부터 개발·금융지원, 직접 투자 등 사업의 전 단계를 유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술, 금융 전문성을 토대로 민·관 합동 수주단(Team Korea)의 중심점 역할을 담당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설립됐다.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300억 달러를 회복하며 최근 몇 년 동안의 부진을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수주 회복 탄력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때문에 기관과 연구소들은 올해 해외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짙은 상황에서 수주 지속성 확보가 요구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잘나갔던 해외건설이 침체에 빠졌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출범한 만큼 허 사장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지난해 6월에 공식 출범한 만큼 조직을 추스르기도 벅거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 사장의 표정은 어둡지 않았다.

허 사장은 “모든 진용을 갖추고 한 게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흡족한 상태”라면서 “다른 공사에서 조금씩 보내주고 3분의 2 정도는 채용했는데 대기업에서 해외사업을 하던 분들이 오시다 보니 금방 현안에 투입돼도 지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은 해외건설 수주 정체의 원인을 파악한 만큼 체질개선에 나서야 할 것 같다”며 “우리의 결과물을 기다리는 시선이 많은데 지금까지는 초기 사업으로 내놓기에는 부족한 사업들이어서 1분기 정

KIND, 국토부 산하 공사로 해외사업 전 단계 유기적 지원 작년 해외건설 수주 300억 달러 부진 벗어났지만 불확실성 여전 美·佛 ‘PPP’로 수주액 70% 확보 2017년 국내 기업은 5.5% 불과 전 세계 대상 PPP 진출 환경 분석 동남아·중남미 등 수주 확대 노력



도까지 속성 중인 사업과 합쳐서 한꺼번에 결과물을 내놓고 싶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덩치 큰 사업을 하기에는 아직 자본금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실제로 최근 해외수주는 국가대항전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각국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을 최대한 투입해 물량 수주에 나서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전통 강국들 외에 최근에는 일본, 중국 등도 수주전에서 풍부한 자본금을 앞세운 ‘썬(錢)’의 전쟁을 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허 사장은 “자본금 자체가 원활한 사람을 추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우리는 물론이고 정부도 하고 있어서 최근 펀드 조성이나 자본금 출자 등의 방안을 고민하고 일부는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 기조가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 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인 만큼 조만간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제 취임 7개월째를 지나는 허 사장은 조직의 기틀 구축과 청사진 마련을 통해 달려갈 방향을 ‘투자개발형(PPP) 사업의



허경구 사장은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했다. 해외사업처 사업금융팀장, 해외사업개발처장, 해외사업본부장을 역임하고 삼성물산 프로젝트사업부 상임고문을 지냈다. 지난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초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확대’로 꼽았다. PPP 사업은 발주처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도급사업과 달리 기업이 직접 자금을 조달해 건물이나 도로 등을 건설하고 운영이나 분양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허 사장은 “중동·아프리카 및 아시아 등 대형 인프라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국가 대부분이 개발 방식으로 PPP 사업을 택하는 추세”라며 “또 한 번의 해외건설 르네상스를 맞이하려면 PPP 사업에 대한 수주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세계은행(WB) 조사에 따르면 세계 건설시장에서 PPP 사업의 비중은 2010년 기준 약 24.8%다. 이미 30%를 넘어섰다는 분석과 함께 10년 내 5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해외건설 수주액의 70% 안팎을 PPP 사업에서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물론이고 건설업계 자체가 PPP 사업에 대한 수주 노력이나 의지가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다.

2017년 기준 해외건설 전체 수주액(290억 달러) 중 PPP 사업(16억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5.5%에 불과하다. 전년인 2016년 비중(0.3%)과 비교해 보면 20배 가까이 늘었지만, 여전히 부진하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이에 허 사장은 “현재 동남아 및 중남미 지역에서 성사 가능한 사업을 검토 중에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또한 KIND는 최근 중장기 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진출 대상국에 대해 PPP 진출 환경을 분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사업 정보 입수 및 사업 개발을 통해 우리 기업의 동남아 및 중남미 지역 수주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허 사장은 내부 조직원들의 의견 교환 작업에 무엇보다 공을 들이고 있다. 유능한 직원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활용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PRM(Project Review Merrting)’이라는 회의를 신설해서 1주에 한 번씩 그동안의 정보취득 현황과 직원들의 경험에 기반한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 이 회의는 단순한 의견 교환이 아닌 직원들 간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효과적인 결과 도출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공사 출범 초기부터 제기되는 해외건설협회와의 중복성에 대해서도 허 사장은 명쾌하게 대답했다.

허 사장은 “수십 년간 해외인프라 시장에서 협회의 정보력을 되레 KIND가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해건협은 거시정보를, KIND는 사업별 세부정보를 담당해 상호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봐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우리는 창립 목표가 발전소, 항만, 철도 등 간에 온힘을 다해 프로젝트를 수주하도록 돕고 수주하는 것”이라며 “내·외부적으로 너무 우수한 인력이 많은데 더 많은 우수한 인력들을 채용하고 활용해서 더 많은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또 사람을 뽑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구성원 기자 carlove@

40대, 힘들고 지친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우리를 위하여

토닥 토닥 마흔이 마흔에게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우리들에게 파괴적 혁신을 강요한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위협하며 가뜩이나 힘든 40대 중년들의 어깨를 더 움츠려 들게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부르짖을 때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야 할 가치들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그 건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가족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우리의 인생은 한결 따뜻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토닥 토닥 마흔이 마흔에게 | 2,800원 | 252쪽

고즈윈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7길 84 4층 전화 02-325-5676 팩스 02-333-5980

VitaminHouse 1588-8529 <http://www.vhmall.net>

김미숙의 건강관리 비법?!

저는 **차가버섯**으로 걱정 없어요

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시베리안 차가버섯



“동양철학은 미신 아닌 합리적 통제”

국회에서 동양철학 특강 여는 김종희 의원

“고용 없는 성장·양극화 등 대한민국 대안 위해 강연 마련” 유학자 부친에게서 전통학문 배워...한의학 박사학위 취득

“지금 사람들은 공부하지 않고 옛날 사람들을 무시하지요. 공부했다는 사람들도 자기 분야 전문가로 그치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만물에 대해 줄줄 꿰고 있었어요.”

8일 국회에서 조금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김종희(사진) 민주당 의원 주 최한 ‘동양철학 특강’이 바로 그것이다. 국회에서는 매일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린다. 다양한 정책 현안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회 등이 줄을 잇는다. 하지만 풍수지리, 관상, 사주 등 동양철학을 주제로 하는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나 다름없다. 현직 의원이 직접 강의에 나선 일도 드물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보기 드물게 유학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본인의 철학 대안을 강조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유년 시절부터 유학자인 부친으로부터 전통 학문을 배웠으며 자신이 유학자이기도 하다. 성균관대 유학대학원 석사학위와 원광대 한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10~2012년에는 원광대 한의과대학 겸임교수를 지냈다.

김 의원은 동양철학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이번 강의를 기획했다고 했다. 그

동안 동양철학이 신비적 요소를 앞세워 과대 포장되거나 비과학적이란 편견 속에 평가절하돼 왔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성리학과 풍수학, 한의학 등 잘못 알려져 있는 동양사상과 역사를 바로잡는 한편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강연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은 총 3회로 구성된 전체 일정의 첫 시간이었다. 김 의원은 1시간 20분가량 진행한 강연에서 사주, 관상 등을 차례로 설명하며 동양철학의 ‘과학성’을 강조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김 의원은 “사주 팔자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에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수성 중 어느 별이 지구에 미치는지를 풀어낸 것”이라며 “옛날 사람들이 지구가 둥근지도 몰랐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다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상과 한의학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관상과 한의학에 대해 몰라서 그렇지, 제대로 보면 무섭게 맞다”며 “동양철학은 철저한 합리적 정신에 바탕한 기록이 축적돼 수천 년간 쌓인 통계일 뿐



이지 절대 미신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없는 것도 지어내서 우리 것이 좋다고 해야 할 판에 서양의 것만 가르치고 있다”면서 전통적 지식 체계가 홀대받는 오늘날의 세태를 안타까워했다.

그는 오늘날처럼 기술문명이 고도화될수록, 오히려 역설적으로 동양철학의 중요성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세상 모든 것이 물질 중심이지만 불과 30년 안팎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인공지능에 쫓겨 못하게 된다”며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길이 동양철학 인문학 속에 들어 있다. 하나하나 새기면서 정확히 익혔을 때 인간이 사는 의미와 궁극적인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다보스 개근생’ 김영훈 회장, 16년 연속 참석

개인 블로그로 현장 소식 공유 예정

김영훈(사진) 대성그룹 회장이 22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제 49차 세계경제포럼 연례회의(다보스포럼)에 참석한다.

14일 대성그룹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4년부터 16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다보스포럼에 참가하고 있다. 올해에도 그는 포럼에 참석, 다보스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트렌드와 현장에서 느낀 소회 등을 개인 블로그를 통해 생생하게 공유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2008년부터 매년 다보스 소식을 개인 블로그를 통해 전하고 있다. 올해 다보스포럼은 ‘세계화 4.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세계 구조 형



성’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다보스포럼에서 김 회장은 에너지 및 연관 분야 리더들과 전문가들을 만나 세계에너지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적극적 협력과 참가를 촉구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세계에너지협의회(WEC) 회장으로서 올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되는 제24회 세계에너지총회 준비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세계에너지총회는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이벤트로 9월 개최될 예정이다.

변호선 기자 hsbun@

현대자동차 모터스포츠, 올시즌 선수 라인업 확정

현대자동차 모터스포츠가 올 시즌 WRC(World Rally Championship)와 WTCR(World Touring Car Cup) 동반 우승을 위한 드라이버 라인업을 확정했다.

현대 WRC는 작년 시즌 참가자 중 드라이버 부문 종합 2위를 차지한 ‘티에리 누빌’과 ‘니콜라스 질술’, 종합 6위 ‘안드레아스 미켈슨’과 ‘앤더스 예거’, 종합 9위인 ‘다니 소르도’와 ‘칼로스 델 바리오’를 출전 드라이버로 확정했다. 여기에 지난달 새롭게 합류한 전설의 드라이버 ‘세바스티앙 롱’과 ‘다니엘 엘레나’ 등을 추가해 총 8명의 올 시즌 드라이버를 결정했다. 현대 월드랠리팀은 2016년부터 3년 연속 제조사 부문과 드라이버 부문에서 종합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2019 WRC는 모나코 몬테카를로 랠리



12~13일 영국 버밍햄 NEC에서 열린 모터스포츠 전문 전시회 ‘오토스포츠 인터내셔널’에 참가한 현대 WRC팀. 사진제공 현대차

(1월 24~27일)를 시작으로 호주 케냐즈 하이어 랠리(11월 14~17일)까지 총 14차전이 치러진다.

현대모터스포츠는 지난달 초 글로벌 최정상급 투어링카 레이싱인 ‘2019 WTCR’에 참가할 드라이버도 확정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남시꾼 스윙’ 골퍼 최호성, PGA투어 대회 나간다

AT&T 페블비치프로암 특별 초청

‘남시꾼 스윙’이라는 독특한 스윙폼으로 세계 골퍼계의 화제를 모은 골퍼 최호성(46·사진)이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대회에 출전한다.

PGA투어 AT&T페블비치프로암 대회 조직위원회는 최호성에게 다음 달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 동안 열리는 AT&T페블비치프로암의 특별 출전권을 부여하고, 초청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최호성이 PGA투어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티브 존슨 대회 운영위원장은 “남시꾼 스윙을 미국 팬들에게 보여 주게 되어서 설렌다”면서 출전



권 부여의 의미를 설명했다.

AT&T페블비치프로암은 연예인, 스포츠 스타, 재계인사 등 다수의 유명인이 프로 선수와 함께 경기를 벌이는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정용 기자 cogito@

중진공 신임 부이사장에 김현태 기획본부장 임명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신임 부이사장으로 김현태(사진) 기획본부장을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신임 부이사장은 고려대에서 경제학 학사·경영학 석사를 취득하고 인하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7년 중진공에 입사해 기획조정실장·기금관리실장·성과관리실장·경영관리본부장(상임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2018년 6월부터 기획본부장(상임이사)으로 재직해 왔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인사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구강정책과장 장재원 △아동학대대응과장 김우기

◆여성가족부 <과장급 승진> △장관비서관 김영옥 △직무파견(법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 유정미 <과장급 전보> △성별영향평가과장 박정애 △청소년정책과장 최은주 △청소년활동진흥과장 장석준 △청소년활동안전과장 박선옥 △청소년자립지원과장 황우정 △가족지원과장 조신숙 △권익지원과장 류기욱

◆한국전력 <1(나) 직급 이동 (분사)> △감사실 조사팀장 김문선 △전력시장처 전력거래실장 최현근 △노사협력처 한일병원 파견 김건중 △상생협력처 갈등조정실장 서정옥 △중소벤처지원처 동반성장실장 최명호 △자재처 구매실장 김재동 △에너지신사업처 신사업개발실장 이종호 △기술기획처 기술전략실장 한경남 △기후변화대응처 신재생사업실장 박동환 △기후변화대응처 도서전력실장 박희영 △한국해상풍력 파견 심은보 △영업운영처

영업운영실장 박무흥 △영업계획처 요금정책실장 신경후 △배전계획처 배전계획실장 김준오 △배전운영처 배전운영실장 전시식 △계통계획처 동북아연계실장 송호승 △송변전건설처 송전건설실장 서철수 △송변전운영처 변전운영실장 김병현 △신송전사업처 신송전건설실장 김중재 △신송전사업처 변환건설실장 이명희 △해외사업관리처 사업운영실장 김상문 △해외사업관리처 멕시코노르페법인장 정재완 △해외사업개발처 화력개발1실장 이정호 △해외사업개발처 화력개발2실장 이현찬 △해외발전기술처 사업관리기술실장 채호성 △해외발전사업처 원전계약금융실장 전찬혁 △UAE원전건설처 계약관리실장 이달훈

◆수협중앙회 <부장급 승진> △홍보실장 전대지 △IT관리실장 최수용 △이사회 사무국장 계현철 △수산경제연구원장 김현용 △노량진개발사업부장 양운직 △판매사업부장 신황용 △자재사업부장 김경민 △전남본부장 이준서 △인천가공물류센터장 이종환 <부장급 전보> △기획부장 서봉춘 △회원지원부장 박종근 △자금운용본부 운영기획실장 송현규 △리스크관

리실장 박현호 △정보보호단장 한철희 △준법감시실장 이종호 △유동사업부장 김삼식 △강서공판장장 우동근 <부장급 교육> △연수원(국방대 안보과정) 김용식 △연수원(금융연수원 교육) 김기성 <부장급 직무대행> △자금운용본부장 직무대행 송현규 △준법감시인 직무대행 이종호 <부장급 파견> △추차도수협 파견근무 현기현

◆서울문화재단 <전보> △제휴협력실장 한지연 △혁신감사실장 김해보 △경영기획실장 김필국 △예술창작본부장 임미혜 △지역문화본부장 박승현 △공간기획본부장 백승우

◆한국교통대 △학생처장 지평식 △교무부처장 문종필 △기계자동차항공공학부장 신홍식 △전자·전기공학부장 임정수 △화학신소재고분자공학부장 김일호 △산업경영·안전공학부장 홍정의 △행정학부장 박경돈 △경영·통상·복지학부장 전순영 △식품생명학부장 배운정 △철도경영·물류·컴퓨터학부장 우정욱

◆디지털타임스 △논설위원 박영서
◆글로벌이코노믹 △산업2부장(부국장) 이진우 △산업부 차장 민철

게시판

항공우주학회장에 박정선 항공대 교수

박정선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교수가 제32대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올해 1월 1일부터 1년간이다. 1967년 창립한 한국항공우주학회는 현재 5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항공우주 분야를 대표하는 학술단체다. 국제학술지인 ‘IJASS’와 국문학술지 ‘한국항공우주학회지’를 발간하고 있다.



대한토목학회장에 이종세 한양대 교수

한양대학교는 한양대 ERICA캠퍼스 공학대학 건설환경공학과 이종세 교수가 11월 제51대 대한토목학회장으로 취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임기는 1년이다.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인 이 교수는 한국전산구조공학회 회장, 한국지



진공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서길수 영남대 총장 등 ‘KAIST 동문상’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동문회는 2018년도 ‘KAIST 자랑스러운 동문상’ 수상자로 서길수 영남대 총장, 김광수 하버드 의대 교수, 문영환 코아텍 대표이사, 전영현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 방향) 등 4명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상식은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2019년 KAIST 총동문회 신년교례회에서 진행된다.

서길수 영남대 총장, 김광수 하버드 의대 교수, 문영환 코아텍 대표이사, 전영현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 방향) 등 4명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상식은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2019년 KAIST 총동문회 신년교례회에서 진행된다.

부음

▲정복임 씨 별세, 이수빈·경희·종호(해양수산부 과장)·종옥 씨 모친상, 이원표(롯데칠성음료 커뮤니케이션부문장) 씨 장모상, 이윤영(농림축산식품부 근무) 씨 시모상 = 13일,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6일 오전 7시, 02-2258-5940

▲이기봉 씨 별세, 이연주·혜씨 부친상, 김승룡(한화투자증권 WM기획팀 팀장)·김민석(서울S클리닉 원장) 씨 장인상 = 14일, 서울보라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6일, 02-836-6900
▲윤복자 씨 별세, 박한철(전 헌법재판소장) 씨 부인상 = 14일,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6일, 02-3779-1526
▲백창기 씨 별세, 백성흠(현대/기아 미국 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민영(주부)·민정(스마일게이트 홀딩스 상무) 씨 부친상, 이위환(한화손해보험 상무)·김성현(유니 파트너스 대표이사) 씨 장인상, 윤주미(주부) 씨 시부상 = 13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B1층 1호실, 발인 17일, 02-3010-2000

정일환의 Aim High



사회경제부장

4대강 사업의 삽질이 창조경제라는 뜬구름으로 한발 더 후퇴하더니 소득 주도 성장의 신기루로 사라져갈 위기다. 정부는 기업이 정신의 후퇴를 말하기 전에 스스로 모험가 정신과 동업자 정신부터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중화학공업화 선언부터 초고속인터넷 망 구축까지 40여 년간 이어지던 '돌아이노믹스'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의 입에서 여간해서는 나오지 않는 단 어였다. 맞은편 소파에 깊이 파묻힌 이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임자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 아니었소? 그런 임자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원하겠다는데 포기를 해요?” 박정희 대통령은 담배를 꺼내 문 뒤 한 동안 말이 없었다. 잠시 뒤 정주영 현대건설 사장에게도 한 대를 건넸다. 담배를 피지 않는 정 사장이었지만, 조용히 불을 붙여 손에 쥐었다. 1970년 초 어느 날,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고(故) 박정희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청와대로 달려갔다. 그날 밤 박 대통령은 정 회장에게 조선사업을 권유했다. 이미 삼성 이병철 회장은 거절의 뜻을 밝힌 상태였고, 건설업자인 정 회장에게 대형 선박건조는 말도 안 되는 요구였다. 정 회장은 특유의 배짱 좋은 승낙으로 무겁게 내려앉은 침묵을 견어냈다. “각하의 뜻이 정 그러시다면, 까짓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영국 선박 컨설턴트 기업 A&P 애플도어의 찰스 롱바텀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회장을 만나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든 것은 그로부터 1년 뒤의 일이다. 현대중공업을 탄생시킨 정 회장의 배포와 모험심, 불 같은 기업이 정신을 깎아내릴 생각은 1도 없다. 박정희 정부를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 치켜세울 마음도 전혀 없다. 다만 조선업 세계 1위의 신화는 정주영 회장의 대담함에 정부가 미친 짓으로 손발 맞추며 생겨났다는 점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경제발전 계획을 시작한 1960년대 중반까지 한국은 세계은행(World Bank)의 저개발국 경제발전계획을 충실히 따르는 모범생이었다. 세계은행은 당시까지 가발, 신발, 의류산업 등 경공업 육성을 저개발국이 가난에서 탈출하는 공식으로 사용했다. 대규모 자본과 인프라, 설비 등이 없는 상태에서는 노동집약적 산업인 경공업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은행의 강한 반대에도 경공업을 버리고 중화학공업을 육성한다는 미친 짓을 시작했다. 나라 곳간도 변변찮던 시절, 세계은행이 “이런

식이면 차관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자 대통령이 세계를 돌며 손을 벌리는 구걸외교에까지 나섰다. 이 와중에 시작된 정주영 회장의 울산조선소 건설이 눈앞에 다가오자 정부는 1973년 1월 ‘중화학공업 육성선언’으로 맞장구를 치는 팀워크를 발휘했다. 삼성이 벌인 미친 짓에도 알고 보면 정부가 제공한 멍석이 깔려 있다. 1974년 이견희 이사가 “한국반도체를 인수하겠다”고 하자 아버지 이병철 회장마저 고개를 가웃거렸다. 결국 사재를 털어 한국반도체를 사들였지만 10여년 동안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룹 내에서도 설비투자 자금을 내주는 곳이 없어 전전긍긍하던 삼성반도체에 손을 내민 것은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었다. 수출입은행은 반도체가 뭔지도 제대로 몰랐던 시절, 유일하게 삼성의 반도체 사업에 돈을 빌려주며 지원에 팔을 걷었다. 외환위기를 맞아 기업이 위축되자 정부가 혼자 미친 짓을 벌인 적도 있다. 1998년 6월 부도 맞은 나라의 리더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마주 앉은 뒤 “인터넷 코리아”를 제시하고 밀어

붙였다. 브로드밴드 구축을 먼저 시작했던 나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뒤쳐졌던 한국인들이 외국에만 나가면 느려터진 인터넷에 혈압 오르는 사람들이 된 배경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의 미친 짓은 여기까지였다. 4대강 사업의 삽질이 창조경제라는 뜬구름으로 한발 더 후퇴하더니 소득 주도 성장의 신기루로 사라져갈 위기다. 정부는 기업이 정신의 후퇴를 말하기 전에 스스로 모험가 정신과 동업자 정신부터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중화학공업화 선언부터 초고속인터넷망 구축까지 40여 년간 이어지던 ‘돌아이노믹스’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소득 3만 달러이니 4차 산업혁명이니 내 귀에 캔디 같은 소리 말고 “5년 안에 전국 모든 차량을 자율주행 수소연료차로 대체한다”거나 “내년부터 국내 유선 인터넷을 모두 끌어내고 5G 모바일 망으로 바꾼다”는 등의 미친 계획을 세워보면 무슨 일이 생길지 궁금해진다. 수요예측이니 사업타당성 검토니 먹지 말고 기업에 양보하고 정부가 미쳐보면 어떨까.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지 않나. whan@



이중호 칼럼

한국과학저술인협회장

1902년 조르주 멜리에스 감독은 영화 ‘달세계 여행’에서 기묘한 특수효과를 동원해 달나라에 착륙한 인간의 모습을 그렸다. 당시만 해도 인간이 달에 갈 수 있다는 것은 황당무계한 상상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고작 70년도 지나지 않은 1969년 7월 20일, 전 세계인은 안방에서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 표면에 첫발을 내딛는 암스트롱의 모습을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인간이 최초로 지구를 떠나 우주의 지상에서 발을 디딘 것이다. 이후에도 우주 연구는 계속 진행되었는데 인간의 욕심은 한도가 없다. 한마디로 우주만큼 우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지구인들도 우주여행을 맛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꿈, 즉 전문 우주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우주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미국인 기업인 데니스 티토가 2001년 4월, 무려 2000만 달러라는 거금을 지불

한 후 러시아의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도착하여 8일간을 머물다 귀환함으로써 증명했다. 나이 60살, 키 164cm, 체중 63kg의 티토는 ISS에서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으면서 그야말로 관광객으로 모든 일정을 보냈다. 8일 동안 우주선 안에 탑승하는 조건으로 2000만 달러를 지불한다는 것이 매우 비싸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겠지만 티토의 우주관광은 상업 우주여행 시대가 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일단 일반인들도 우주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자 보다 야심적인 우주여행이 각지에서 계획되고 있는데 지상 100km 상공에서 우주 결혼식을 올리자는 아이디어도 그중 하나이다. 예식은 비행기형 로켓인 우주 비행선이 출발하면서 시작된다. 곧바로 무중력 상태로 들어가는데 이때 신랑과 신부는 혼인 서약을 하고 하객들은 이 모습을 지상에서 인터넷을 통해 지켜본다. 시간은 단 5분. 사실 우주결혼식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는 이미 해결된 상태이다. 간단하게 말해

우주에서의 결혼식

ISS와 같은 우주정거장이나 인공위성의 궤도까지 올라가 장시간 머무는 ‘궤도 여행’이 아니라 인공위성 궤도보다는 낮은 100km 고도까지 올라가 몇 분간 머문 뒤 다시 내려오는 것이다. 우주에서 무중력 상태를 맛만 보는 것이지만 결혼식 등을 올린 후 지구를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 이 방식의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으로 최초의 우주관광객인 데니스 티토가 지불한 2000만 달러에 비하면 거의 100분의 1 정도로 가능하다. 이와 같이 우주여행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준궤도 여행용 우주비행선은 우주여행을 마친 뒤 본체가 항공기처럼 활강해 착륙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같은 우주선으로 여러 차례 재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우주여행을 기획하고 있는 우주여행사는 한두 곳이 아니다. 비전 갤럭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페이스십2(Space Ship Two)’는 조종사 2명이 탑승하며 6명의 승객이 탈 수 있는데 지난해 12월 13일 ‘스

페이스십2’를 우주 경계인 상공 80km까지 쏘아 올리는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비행선에는 미 항공우주국(NASA) 출신 우주비행사 2명이 탑승했는데 민간기업에서 개발한 유인(有人) 비행선이 우주 공간까지 날아간 것은 처음이다. 비전 갤럭시는 올해부터 민간 우주여행 사업을 본격 시작하는데, 경비는 1인당 25만 달러로 벌써 600명이 신청했다고 알려진다. 우주에서의 결혼식이 결코 허언이 아닌 시대가 된 것이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우주결혼식이나 우주여행을 위해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느냐이다. 영화 등을 보면 우주인들이 혹독한 우주 비행을 위한 훈련을 하는데 이런 훈련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다.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미래에는 일반인들이 비행기를 타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우주여행을 할 수 있다. 물론 간단한 건강 테스트와 사전 교육은 필수적이지만 전문 우주인처럼 1년 정도 훈련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마틴 루터 킹 목사 명언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미국 흑인 인권운동가. 1963년 ‘워싱턴 대행진’에서 인종차별 철폐에 대한 진실한 소망을 표현해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린 그의 연설. 그는 노벨평화상을 받았지만, 39세에 극우파 백인에게 암살당했다. 미국은 그의 생일에 가까운 매년 1월 세 번째 월요일을 연방정부 공휴일로 지정했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929-1968. ☆ 고사성어 / 욕속부달(欲速不達) 빨리 하려고 욕심을 내면 오히려 미치지 못한다는 뜻. 출전은 논어(論語) 자로편(子路篇). 한 고을의 읍장이 된 제자 자하(子夏)가 공자에게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묻자 그에 대한 답에서 유래했다. “빨리 하려 하지 말고 작은 이익에 눈을 주지 말아라. 서두르면 이루지 못할 것이요, 작은 이익을 보면 큰일을 이룰 수 없느니라.”

기자수첩



조성준 중기IT부/tiatio@

택시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안다. 하지만 택시 운행이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이 오히려 환영하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길거리에 택시가 적어져 도로가 한산해졌다는 의견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택시업계 파업이 장기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비아냥거린다.

소비자들의 이런 의견은 지금까지 택시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지를 대변한다. 최근 카풀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상생’이 자주 거론된다.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간다’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와는 다르게 그동안 택시는 소비자들의 공격 대상이 됐다. 승차거부는 기본에 연말, 연초

가까운 거리의 택시 이동은 하늘의 별따기였다. 택시 이용이 어려워지자 사람들은 다른 서비스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 카풀이다. 카풀이 어떤 서비스인지 몰랐던 사람들도 택시업계의 반대 집회가 크게 이슈화되며 오히려 ‘카풀’ 서비스를 알게 됐다. 지난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카풀 서비스 도입 조사에서는 소비자 56%가 ‘찬성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택시업계에서는 등 돌린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서비스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승차거부, 과속·난폭운전 등을 하는 기사는 일부겠지만 그 영향은 택시업계 전체로 퍼지기 때문이다.

☆ 시사상식 / 리퍼비시(Refurbish) 제품 구매자의 단순 변심으로 반품된 정상품이나 제조나 유통 과정에서 오류로 미세한 흠집이 있는 제품. 단기 전사용으로 사용했던 제품 등을 보수, 재포장해 새 상품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가격은 보통 새 제품보다는 저렴하고 중고 제품보다는 높게 매겨진다. ☆ 우리말 유래 / 선(先)보다 머느리, 사위, 남편, 아내 될 사람의 용모와 행실을 미리본다는 뜻. 옛날에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기 전에 양가의 부모들이 ‘먼저’ 신랑과 신부될 사람의 인물됨을 살펴본 데서 생겨났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카풀 갈등이 올해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택시업계 갈등, 카카오톡 대상으로 한 집회, 소비자의 불만 등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감도 오지 않는다. 택시업계가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 때마다 수만 명의 택시기사들이 집회 장소로 모인다. 지방에서도 택시기사들이 서울로 올라오기 때문에 해당 집회가 열리는 날에는 길거리에서 택시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 각 택시 사업체에서는 공식 파업은 아닌, 택시기사들의 자율적 의지로 운영을 제한한다. 택시기사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책임질 운행마저도 뒤로한 채 집회에 참가해 목소리를 높인다. 그만큼 절실하다는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Table with 4 columns: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Includes contact info for non-fiction, social economy, and IT departments, and a subscription rate of 15,000 won per month.

그 지독한 컬렉션 욕망을 좇은 사람들

미술품 컬렉션 자료나 기록을 살피다 보면 상식을 비껴가는 다양한 일화를 만나게 된다. 명품을 취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는 격정이 있고, 통제되지 않는 수집욕으로 파산하는 비극도 있다. 애지중지하는 작품을 혼자만의 것으로 독점하려는 소유 욕망 때문에 불태워지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무덤에 부장케 하는 이야기도 나온다.

김지호의 古美術을 찾아서

고미술 평론가
전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몇 년 전, 중국과 대만에서 분리된 채로 소장되어 오다가 350여 년 만에 한 몸으로 전시되어 화제가 되었던 '부춘산거도(富春山居圖)'는 한 컬렉터의 극단적인 소유 욕망이 빚어낸 희생물이었다. 이 그림은 원나라의 황공망(黃公望 1269~1354)이 그린 중국의 10대 명화로 꼽히는 작품. 그의 나이 72살 때 무용사(無用師) 스님을 위해 그리기 시작해 4년 만에 완성한 것으로, 절강성(浙江省)의 부춘강과 부춘산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을 그린 수묵산수화다.

한편 컬렉터 자신이 직설적으로 내면의 심리를 비장하게 드러낸 경우도 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사람과 사랑에 빠져본 적도 없고, 그림보다 더 사랑했던 것은 아무 것도 없다. ... 가져간 그림을 다 돌려주고 내가 죽은 뒤에 맘대로 해라!" 2013년 11월, 독일의 은둔 컬렉터 구를리트(C. Gurlitt, 1933~2014)가 나치의 약탈 미술품을 은닉했다는 혐의로 자신의 소장품을 압수당한 후 시사주간지 '슈피겔(Spiegel)'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압수 당시 그는 자신의 분신처럼 애장해 왔던 작품들이 포장되어 반출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앞으로 미술품 없이 살아갈 일이 너무나 끔찍하고 두렵다"며 절망했다

고 전한다. 그렇다고 어찌 이들만이 컬렉션 욕망을 좇았다고 할 것인가? 우리 주변에도 컬렉션 욕망에 대한 감내할 수 없는 갈등을 고백하는 이들이 많다. 그 욕망은 마치 운명 같아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갈등을 해소하고픈 유혹을 느낀다고 한다. 그런 사연으로 컬렉션의 세계에서는 밖으로 드러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해도, 내면에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거부할 수 없는 컬렉션 욕망을 바라보는 우리는 몸서리치지만, 컬렉션의 열병을 앓아본 사람은 그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긍정한다.

그 욕망의 지독한 때문일까, 컬렉션 심리에는 다양한 정의와 비유,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당연히 그 행태를 규정함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잣대의 적용이나 논리적인 해석이 여의치 않을 때가 많다. 세상의 온갖 욕망이 뒤엉키고 넘쳐나는 미술시장을 향해 아름다움을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때로는 타산적으로, 때로는 본능적으로 분출하는 것이어서 더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런 관점에서 컬렉션은 분명 세속적이면서 초월적이다. 깊이와 탁도(濁度)를 알 수 없는 진흙탕에 뿌리내리고 있으면서 지극한 아름다움을 피워올리는 연꽃이라고 할까.

그렇듯 아름다움을 향한 사랑과 욕망이 집념이 되고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어 인류의 미술문화는 보존 전승되어 왔다. 미술 애호와 컬렉션이 개인의 자족과 즐거움을 넘어 기록이 되고 역사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몇 나라 말, 이 그림을 소장하고 있던 오홍유(吳洪裕)는 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임종하면서 그림을 태워 그 재를 함께 묻어 달라고 유언한다. 유언에 따라 그림은 결국 불에 던져지는데, 그 순간 이를 안타까이 여긴 조카가 작품을 구해내지만, 이때 일부가 불에 타고 훼손되면서 두 부분으로 분리된다. '임산도권(剩山圖卷)'으로 불리는 길이 51.4cm의 앞부분은 항주의 절강성박물관에 소장돼 있고, '무용사권(無用師卷)'으로 불리는 639.9cm 길이의 뒷부분은 장개석의 국민당이 공산당에 패해 타이완으로 쫓겨가면서 가져가 지금은 타이베이 고궁박물관에 소

곽도흔의 共有하기

정치경제부 차장



제2의 신재민이 안 나오려면

하지만 들여다보면 불수록 상황은 심각해 보였다. KT&G 인사개입, 적자국채 발행 압박이 문제가 아니다. 신 사무관 채 발행 압박이 문제가 아니다. 신 사무관을 포용하지 못하는 기재부의 시스템 애기다. 신 사무관의 글을 보면 상사인 국장, 차관보와 적자국채 발행의 문제점에 대해 얘기를 많이 했고 결론적으로 적자국채는 발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신 사무관이 조직에서 나와 폭로를 하기까지 그의 고민을 들어준 동료는 없었던 것 같다.

건너 들은 얘기로는 주변 동료들은 그의 이 같은 생각을 전혀 읽지 못했던 것 같다. 잘 지냈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게 대다수의 얘기였다. 지금 이 시각에도 신재민 전 사무관 같은 생각을 하는 기재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사무관들이 있을 터다. 신 전 사무관과 차이는 단지 용기를 내지 못하는 차이일까. 그건 아닐 것이다. 누군가는 술 한잔하자며 그 사무관의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기재부를 취재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보고 듣는다. 불합리한 상사의 지시에

열 받은 사무관의 하소연도 적지 않다. 이런 사무관들이 다들 나가 폭로를 한다면 기재부는 해체 위기까지 맞을지도 모른다.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을 고발한 것도 이런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기재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조직 내 포용성을 늘리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여러 부서가 모여 토론회도 하고 부서 간 인사 교류 등도 늘려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신재민 사건을 겪으면서 내·외부와의 소통을 막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늘리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

여권 인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조직에 잘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 "3~4년 사무관 시야와 고위 공무원 시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최종 결정은 장관이나 대통령 등 최종 결정권자가 하는 것이다", "관점이 다르다고 잘못했다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다" 등의 시각으로 접근하면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2, 제3의 신재민이 언제든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에 따른 조직의 분란과 사회 혼란은 더 클 수밖에 없다. soqood@

"신재민 사무관의 말에 공감하는 사무관들이 많다." 최근 만난 기획재정부 과장급 공무원 얘기다.

기자들이 자주 접하는 신재민 같은 행정고시 출신 엘리트 초임 사무관은 대부분 대쪽같다. 취재하려고 전화를 하거나 만나면 절대 얘기를 줄 수 없다고 통명스럽게 말하기 일쑤다.

기자가 열을 받아 과장이나 국장급 공무원에게 전화하면 초임 사무관이라 그렇다고 이해해 달라라는 말을 한다.

하지만 신재민은 달랐다고 한다. 몇 번 만난 기자들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며 친한 척을 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사람 사귀는 것을 좋아하는 사무관 같지 않은 사무관이었다. 기재부를 오래 취재했지만 신재민 전 사무관 같은 사건은 처음이었다. 4년 차 사무관이 뛰쳐나가 '내가 겪었다'며 정책의 불합리함을 토로할 줄은 몰랐다. 그래서 사실 처음 들었을 때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사설

청와대-재계 회동, 투자 팔비틀기 안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대기업·중견기업 및 지방상의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 '타운홀 미팅' 형식의 간담회를 갖는다.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22개 대기업 총수와 중견그룹 대표 39명을 포함해 모두 130여 명이 참석한다. 청와대가 새해 초부터 적극 나서고 있는 친(親)기업 경제행보의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2일 신년인사회에도 4대 그룹 총수를 초청한 데 이어, 7일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들과 청와대 간담회를 열었다.

기업들에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주문하기 위한 회동이다.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수많은 정책 수단을 집중했지만 고용 상황은 나빠지기만 하고, 그나마 괜찮았던 수출까지 꺾이면서 경기가 갈수록 뒷걸음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엄중한 한국 경제의 위기가 청와대도 "경제 활력을 찾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인들과 소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제 활력을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의 기를 북돋아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핵심요건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재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건 다행스럽다. 문 대통령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 고위층도 잇따라 재계와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소

통이 이뤄지려면 청와대·정부·여당 등 국정 주체들이 기업의 목소리와 애로를 충실히 듣고, 스스로 책임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투자 환경의 획기적 개선이 담보되지 않으면 또다시 기업인들의 팔을 비틀어 투자를 압박하는 자리가 될 뿐이다. 이래서는 재계의 부담과 피로감만 키우고 성과도 얻기 힘들다.

그런 점에서 재계의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큰 게 사실이다. 재계가 절박하게 요구해 온 현안은 규제철폐와 노동개혁,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 입법 등이다. 하지만 전향적인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반(反)시장적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의 정책 기조를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 상위 계층과 대기업에만 집중됐다고 주장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소통을 말하지만 재계가 그 진정성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이유다.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길은 멀지 않다. 정부가 규제를 없애 마음대로 기업할 자유를 주고, 고질적 노사대립 구도와 귀족노조의 기득권을 깨는 노동개혁이 뒷받침되면 투자는 절로 일어난다. 굳이 바쁜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불러모아 대화를 나눌 것도 없다. 이런 걸림돌부터 제거하지 않고는 아무리 재계와의 소통과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강조해 봐야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뿐이다.



자강불식(自強不息)

원로 철학자 김형석 교수의 삶을 담은 '100세를 살다보니'라는 다큐 방송이 중년과 노년층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99세이던 지난 연말에 수영장에서 자유형과 배영을 번갈아 하며 레인을 왕복하는 노인의 의연한 자세와 탄실한 체력을 놀랐고, 새해를 맞아 100세가 된 나이에도 혼자 기차를 타고 서울을 출발하여 강릉까지 가서 해변을 걷고 지인을 만난 후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건강한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김형석 교수는 말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위한 이유는 운동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온 것이 건강의 비결인 것 같다고. 참 맞는 말이라는 생각을 했다.

필자의 주변에 건강을 챙겨야겠다며 매일 열심히 등산을 하던 사람이 있었다. 밥만 먹으면 산에 가는 게 일이었다. 등산을 통해 몸을 건강하게 함으로써 그 건강한 몸을 활용하여 비록 작더라도 뭔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가치를 창조하겠다는 생각이 없이 그저 몸을 튼튼하게 해야겠다

는 생각만으로 그렇게 산을 오르는 사람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함께 어울리는 자리에서 막걸리 한잔하자고 해도 내일 산에 가려면 일찍 자야 한다면서 혼자 집으로 가던 사람이었다. 결국은 오래 살지 못하고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보다 훨씬 먼저 세상을 떠났다.

우주는 단 1초도 쉬지 않기 때문에 것처럼 영겁의 세월을 같은 모습으로 운행한다. 이에 대해 역경(易經)은 "천행건군자(天行健, 君子以自強不息)" 즉 "우주의 운행이 것처럼 굳세고 튼튼하니 군자는 그런 우주의 정신으로 자신의 정신을 삼아 스스로 강해지기를 쉬지 않는다"고 풀어 설명하고 있다.

스스로 강하려면 지향하는 가치를 좇아 쉽게 없는 연마를 해야 한다. 휴식도 중요하지만 휴식보다 더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게 단련이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강하려고 쉬지 않은 '자강불식(自強不息)'의 자강(自強)이 곧 건강(健)이고 건강(健康)이리라.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이투데이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KT고객이라면
해외에서도
국내 통화료로
부담없이
통화하세요

로밍 ON

별도 신청 없이 미국, 중국, 일본, 괌,
러시아, 베트남, 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사이판, 필리핀, 마카오,
말레이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독일, 호주, 뉴질랜드 총 21개국에서
음성통화 1초 1.98원
10분을 써도 1,188원
Thank you

PEOPLE. TECHNOLOGY.



음성로밍 초당 1.98원 적용(부가세포함), 자세한 사항은 kt.com 홈페이지 참조